

문화나누美

예술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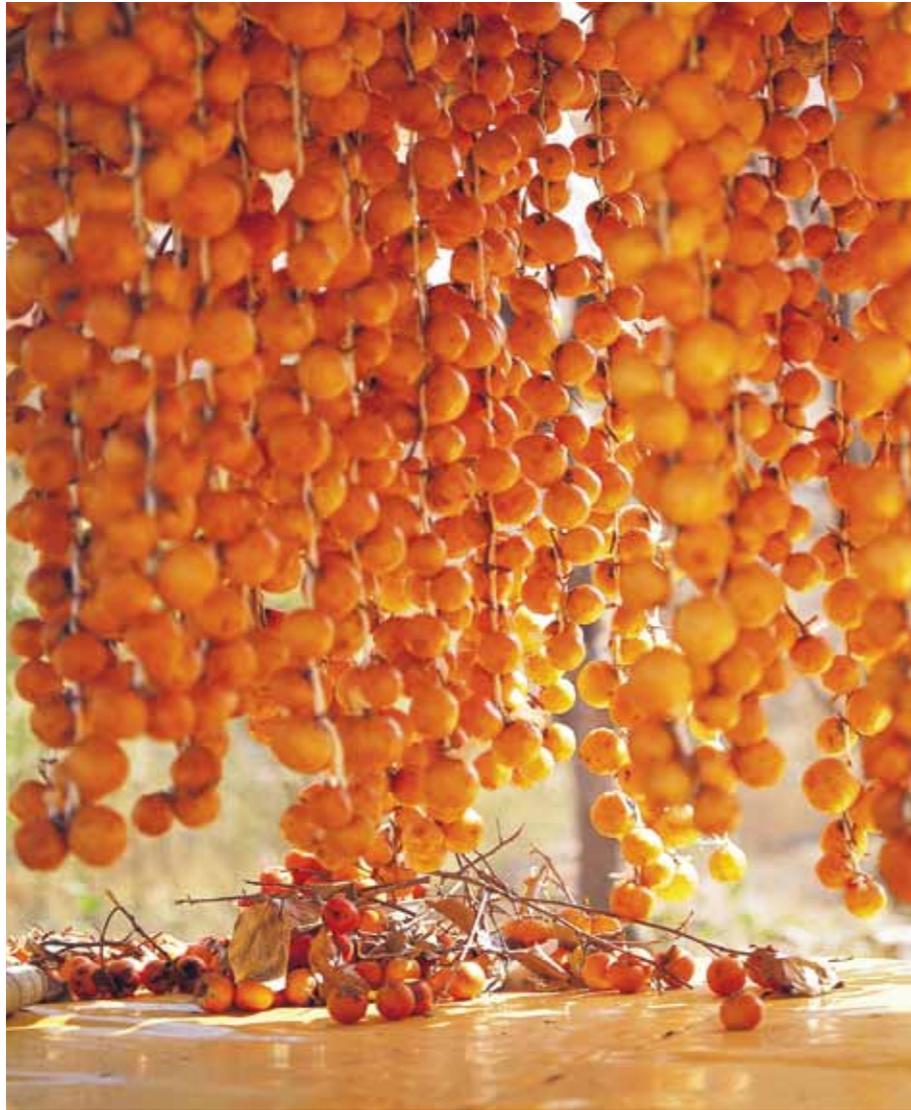


문화나누美 여러분의 전화한통이 아름다운 문화 세상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얘기[藝術寄附]해요! 휴대폰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09 + 10 2014 Vol.44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하늘 다리



contents

02	포토에세이	ASAC Culture Trend	
04	9~10월 공연 캘린더	34	테마가 있는 미술 _ 내셔널 갤러리
	ASAC Special	40	테마가 있는 공연 _ 극단 골목길
08	인터뷰 _ 안산시장 제종길(안산문화재단 이사장)	44	테마가 있는 음악 _ 오페라 속의 춤
13	인터뷰 _ 경기문화재단 홍기현 이사장	50	칼럼 _ 4부. 조절음악치료 5~6단계의 이론강해
17	초대석 _ 소리꾼 이희문		ASAC 해외문화기행
	ASAC Stage	56	스페인 톨레도
22	ASAC 우수소극장 시리즈9		ASAC News
24	아침음악살롱 4	64	2014 단원미술제
26	ASAC 공연예술제	66	청소년극단 '고등어'
28	오픈스페이스 프로젝트		
30	ASAC 특별프로그램 _ 몸짓페스티벌		

abundant **듬성듬성했던 마음이 주렁주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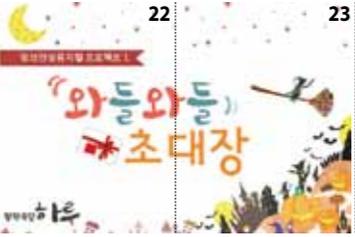
가을은 지혜로운 농부입니다. 봄의 파릇파릇한 희망과 여름의 이글이글 타오르는 정열이 차곡차곡 쌓여야만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희망과 열정이 쌓일 시간을 충분히 주는 지혜. 그 넉넉한 현자의 품에서 우리 마음도 성숙해질 수 있지요. 가을바람 소슬하여 마음에 듬성듬성 구멍이 난 것 같을 때, 지혜의 빛으로 주렁주렁 열린 열매를 충분히 바라볼 일입니다.

발행일 2014 9-10월호(통권 제44호) · 비매품 발행처 (재)안산문화재단
 발행인 제종길 편집인 김인숙 기획 기획홍보부 김선광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전화 080-481-4046 팩스 031-481-4021
 홈페이지 www.ansanart.com 디자인 및 제작 경인m&b(주) (031-231-5522~4)

「하늘다리」는 무지개를 뜻하는 말로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하는 안산문화재단의 의지입니다.

2014. 09 (September)

공연은 기획/대관으로 구분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p>기획 유아렉처 10:20,11:40 / 해돋이극장</p> <p>대관 충치없는 치아나라 10:10,11:30 / 달맞이극장</p> <p>대관 박지숙 피아노독주회 20:00 / 별무리극장</p>	<p>기획 유아렉처 10:20,11:40 / 해돋이극장</p> <p>대관 뮤지컬 메리골드 19:00 / 달맞이극장</p>	<p>기획 유아렉처 10:20,11:40 / 해돋이극장</p>		<p>대관 우리동네 배우났네 18:00 / 별무리극장</p>
	7	8	9	10	11	12
						<p>대관 리틀엔젤스예술단무용공연 14:00, 17:00 / 해돋이극장</p> <p>대관 피아노듀오콘서트 19:30 / 달맞이극장</p>
	14	15	16	17	18	19
<p>대관 연극 깨레 코리아 앙상블 15:00 / 별무리극장</p>		<p>대관 기업은행 참좋은음악회 19:30 / 해돋이극장</p>			<p>대관 제19회 청소년연극제 13:00 / 별무리극장</p> <p>대관 뮤지페스타벌 수상자축하음악회 15:00 / 해돋이극장</p> <p>대관 별양성예술제 전국무용경연대회 09:00 / 달맞이극장</p>	<p>대관 제19회 청소년연극제 13:00 / 별무리극장</p> <p>대관 뮤지페스타벌 수상자축하음악회 15:00 / 해돋이극장</p> <p>대관 별양성예술제 전국무용경연대회 09:00 / 달맞이극장</p>
	21	22	23	24	25	26
<p>대관 제19회 청소년연극제 13:00 / 별무리극장</p>		<p>대관 와들와들 초대장 10:30 / 달맞이극장</p>	<p>기획 음악의 정원 11:00 / 별무리극장</p> <p>대관 주민자치위원연수 및 동아리경연대회 09:00 / 달맞이극장</p>		<p>기획 음악의 정원 11:00 / 별무리극장</p> <p>대관 하안마을백구 11:00,14:00,16:00 / 달맞이극장</p> <p>코리아클래식 전국학생음악콩쿠르 09:30 / 별무리극장</p>	<p>기획 몸짓축제 특별프로그램 16:00 / 해돋이극장</p> <p>대관 하안마을백구 11:00,14:00,16:00 / 달맞이극장</p> <p>코리아클래식 전국학생음악콩쿠르 09:30 / 별무리극장</p>
	28	29	30			
<p>대관 시흥클래식기타앙상블 정기연주회 17:00 / 달맞이극장</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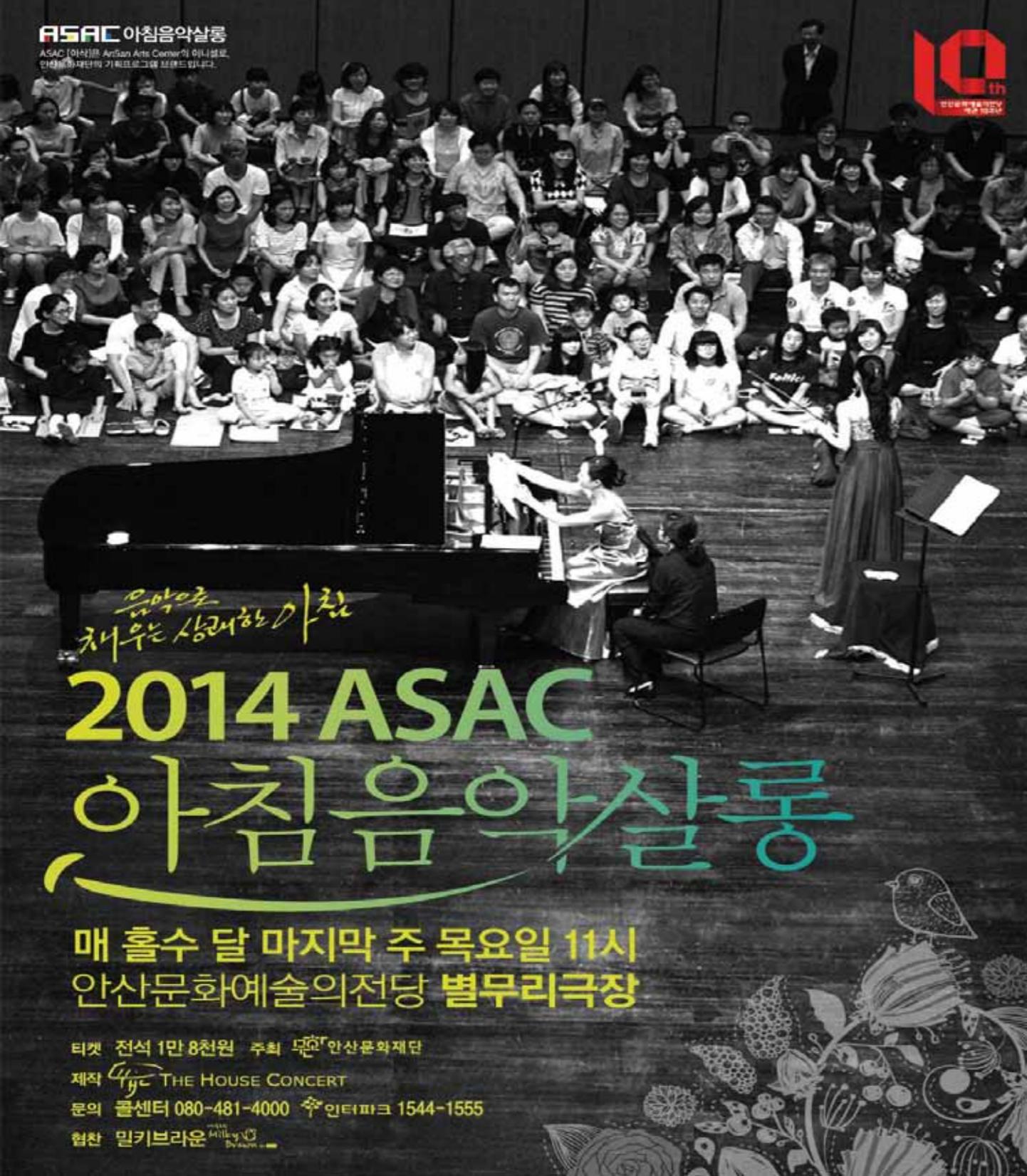
2014. 10 (Octo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p>대관 연극 걱정된다 이가족 19:00 / 별무리극장</p>		<p>대관 안산국제아트페어 개막식 및 축하공연 17:00 / 달맞이극장</p>	
	5	6	7	8	9	10
			<p>대관 제48회 정기연주회 19:30 / 해돋이극장</p>	<p>기획 ASAC공연예술제 / 별무리극장</p>	<p>기획 ASAC공연예술제 / 별무리극장</p>	<p>기획 ASAC공연예술제 / 별무리극장</p> <p>대관 성황굿춤예술제 14:00 / 달맞이극장</p>
	12	13	14	15	16	17
<p>대관 어린이난타 11:00,14:00 / 해돋이극장</p>		<p>기획 몸짓축제 서벌레단 19:30 / 달맞이극장</p> <p>대관 인형극 아이기돼지보쌈 10:20,11:30 / 해돋이극장</p>	<p>대관 인형극 아이기돼지보쌈 10:20,11:30 / 해돋이극장</p>	<p>기획 로동찬유랑극장 20:00 / 별무리극장</p>	<p>기획 로동찬유랑극장 20:00 / 별무리극장</p>	<p>기획 로동찬유랑극장 15:00,19:00 / 별무리극장</p> <p>기획 몸짓콘서트 15:00,19:00 / 달맞이극장</p> <p>대관 앤섬코랄 제2회 정기연주회 17:00 / 해돋이극장</p>
	19	20	21	22	23	24
<p>기획 로동찬유랑극장 14:00,18:00 / 별무리극장</p>		<p>기획 몸짓축제 박명숙무용단 19:30 / 달맞이극장</p>		<p>대관 제16회 안산경민요단 정기공연 19:30 / 달맞이극장</p>		<p>기획 오더메이드 레퍼토리 잡 15:00,19:00 / 별무리극장</p> <p>대관 클래식의 밤 19:00 / 달맞이극장</p>
	26	27	28	29	30	31
<p>기획 오더메이드 레퍼토리 잡 17:00 / 별무리극장</p> <p>대관 예쁜어린이집 사랑음악회 16:00 / 달맞이극장</p>		<p>대관 단원보건소-비만인형극 10:00,11:20 / 해돋이극장</p> <p>기획 한문연 문화가있는날 19:30 / 해돋이극장</p> <p>대관 청소년힐링뮤지컬 유령친구 15:00 / 달맞이극장</p>	<p>대관 정기연주회 19:00 / 달맞이극장</p>	<p>대관 송호중학교 제10회 송향제 14:00 / 해돋이극장</p> <p>대관 해양중 오케스트라 발표회 19:00 / 달맞이극장</p>		

※ 공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관람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80-481-4000

ASAC 아침음악살롱

ASAC [아침]은 Arisan Arts Center가 아닌, 안산문화재단의 기획프로그램 브랜드입니다.



음악으로
채우는 상쾌한 아침

2014 ASAC

아침음악살롱

매 홀수 달 마지막 주 목요일 11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티켓 전석 1만 8천원 주최 안산문화재단

제작 THE HOUSE CONCERT

문의 콜센터 080-481-4000 후 인터파크 1544-1555

협찬 밀키브라운

ASAC

SPECIAL

08 . . . 인터뷰 _ 안산시장 제종길
(안산문화재단 이사장)

13 . . . 인터뷰 _ 경기문화재단 홍기현 이사장

17 . . . 초대석 _ 소리꾼 이희문



제 종 길 안산시장
(안산문화재단 이사장) 인터뷰

“안산 발전과 변화의 중심에 서는 안산문화재단을 꿈꾼다”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은 가슴 뛰는 삶의 원동력이다. 생동하는 문화예술의 터전으로서 안산의 입지를 다지며 가슴 뛰는 문화 복지를 실현하고자 설립된 안산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안산의 문화적 잠재력을 이끌어 내며 창의와 감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해온 안산문화재단. 더욱 성장해 가는 모습으로 더 큰 세계를 향해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안산문화재단의 수장(首長) 제종길 안산시장(안산문화재단 이사장)을 만났다.

안산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문화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더라도 영혼이 빈곤하다면 결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감성의 발이 풍요로운 사람은 평생 동안 행복을 수확할 것입니다.

이에 안산문화재단은 그동안 공연과 전시, 여러 문화사업 운영 등에 있어서는 풍성한 숲을 이루며 시민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일을 잘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젠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 변화의 중심에 서서 성장 동력을 이끌고 새로운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1년이 이런 일들을 위한 문화와 예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을 퍼 올린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깊이’를 만들어 가는 일에 중점을 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안산문화재단은 우리 지역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문화예술의 에너지들이 팔팔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생명력 있는 안산문화재단으로 성장하며 지역민의 가슴을 뛰게 하고 영혼을 채워주는 벚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안산의 예술인은 물론 시민 모두의 ‘발칙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화와





예술의 산실을 마련하고 문화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민 모두가 공기처럼 호흡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안산문화재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사장이자 시장으로서 갖고 계신 생각은?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안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터전이자 요람으로서 토털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탄탄한 ‘맨 파워(Man Power)’입니다.

또 재단은 관내 대학, 기관 등이 배출하는 우수한 문화예술 인재들이 미래 우리 안산의 문화예술을 책임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이러한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안산문화재단의 이사장이자 안산시장이자 저는, ‘사람 중심 안산 특별시’의 장점을 살려 우리 재단을 안산이라는 지역적 특색 위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누구나 ‘문화 DNA’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수려한 안산의 풍광을 통해 문화적 소양과 정서를 자연스럽게 타고난 것입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강세황, 김홍도

같은 우리의 선조들도 이런 안산의 자연 경관 속에서 더 아름다운 예술혼을 쏟아 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0년 전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들어서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전당 주변에 단원구청사 등의 공공기관을 비롯해 여러 시설들이 건립되면 지리적으로 지금보다 더 중심에 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당이 시민들의 동선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갈망하는 분들의 해갈을 위한 문화예술 1번지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1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축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야금, 거문고와 같은 우리 전통 현악기의 생명은 그 몸체, 즉 오동나무의 질에 있다고 합니다. 오동나무는 결이 곱고 연해서 울림이 좋고 벌레가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목재보다도

안성맞춤 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막 베어낸 오동나무를 바로 악기로 만들 수는 없다고 합니다. 눈·비를 맞히가며 최소한 10년 정도 말려야 비로소 재료로써 쓰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지역문화예술을 꽃피우고 시민의 문화수요를 채우며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해온 많은 성과에 대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 값진 성과를 내기까지 눈·비를 맞는 오동나무처럼 어려움을 이겨내며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역량을 키워온 시민 여러분들과 재단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걸어온 10년은 좋은 ‘나무’로서의 자질을 키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제는 시민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다양한 생명체를 보듬는 나무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갔으면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시민들을 전당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많은 사람들의 예술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 더욱 매진해서 ‘아름다운 악기’로 거듭나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되어주길 기대해봅니다.

초임 시장으로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생각과 안산문화재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문화예술정책은 ‘책상’이 아닌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예술인들의 공연뿐만 아니라 열린 문화예술의 장으로서 누구나 와서 숨겨진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해 낼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냉철한 기획과 전략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형식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는 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당의 앞마당이든 공연장이든 모든 시설들은 보이지 않는 ‘끼’와 ‘혼’, 그리고 열정이 녹아나는 ‘장(場)’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 깨끗하고 말끔한 기획은 물론 문화예술은 창조의 과정을 통해 새로움의 추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처럼 가장 안산적인 문화예술에 투자하고 젊은 안산 문화예술인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도 안산문화재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안산문화재단은 찾아가는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 지원과 더 많은 안산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또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비극의 세월호 사고자 가족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해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치유에 집중, 안산문화재단이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역할에 있어서도 중심이 돼야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우리 시 문화예술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저는 안산이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모든 지역민의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각 문화예술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활발히 진행되고 언제 어디서나 광범위하고 자유로운 논의가

이뤄지는 안산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이 삶 자체인 문화예술인처럼 안산시민들도 삶의 공간에 문화예술을 그 일부분으로 받아들여 생활 속에서 호흡하길 희망합니다.

우리 시가 문화예술분야 예산을 기존 2%대에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4%로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도 모든 시민이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는 삶, 문화의 향기를 누리는 안산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확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자기다움의 진정성이 있을 때 문화예술은 불멸의 가치를 발합니다. 안산의 문화예술인들이 '안산의 정신', '안산의 마음'을 탐색하며 예술혼을 발화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누군가 가공해 놓은 쉬운 길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싶습

니다.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원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캐내야 합니다. 모래알처럼 건조해보여도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는 사금 같은 보석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삶이 문화가 되고 예술이 삶이 될 때 우리 삶은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의 가치는 무한대이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람 중심의 안산!', '안산특별시'는 특정인의 노력만으론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할 때 우린 머지않아 이를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은 버겁더라도 그 첫 발걸음을 같이 떼고자 합니다. 



경기문화재단 **홍기헌 이사장**

홍기현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은 “경기문화재단은 17년간 문화예술행정 역량과 비전체계를 쌓아왔다”며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들과 이러한 경험을 함께 공유해 경기 문화예술의 협치를 이루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경기도 언론, 문화계의 원로. 재단 이사장직이 민간에 개방된 이후 첫 민간 이사장이다.

홍 이사장은 “물론 재단 실무행정은 새로 선임될 대표이사 가 책임지고 잘 운영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저는 지역문화를 사랑하는 원로로서 경기도 문화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안산문화재단이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의 중심이 되도록 경기문화재단과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문화재단은 도 문화기관의 만형격입니다. 경기도 문화 현장 전체를 살펴야 하는 경기문화재단이 지금까지 해 온 일과 향후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만의 자랑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예술계를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문화예술계에서는 경기도 스탠더드(Gyeonggi Standard)가 코리아 스탠더드(Korea Standard)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요. 경기문화재단은 1997년 국내최초로 설립된 공공문화재단으로서 예술인 창작 지원 사업과 경기문화의 독창성을 살린 다양한 문화기획 등을 통해 경기 문화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경기도 공공 박물관과 미술관을 통합하면서 국내 최대의 문화예술 전문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백남준 아트센터, 전곡선사박물관 등 독특한 테마를 가진 전문 박물관을 건립하고 운영하면서 경기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까지 열심히 해온 경기도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 경기도의 천년대계를 문화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일들도 해 나갈 것입니다. 예술가들이 거리마다 넘치고, 지역마다 마을마다 자발적인 문화예술을 즐기고 가꾸는 문화시민들도 더 많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품격 있는 콘텐츠와 다양한 체험교육이 있는 박물관·미술관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됐습니다.

두 법의 시행이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우리 경기문화재단은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그리고 시행령의 제정 과정에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에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국 13개 광역 문화재단들과 경기도내 12개 기초 문화재단들도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았다고 하더군요. 경기도가 1997년에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했던 것처럼 이번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기본법은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과 문화분권, 문화자치의 길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문화진흥의 주체로서 문화협치기관인 문화재단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예산확보와 지역 내 협의 구조를 더욱 튼튼하고 수평적으로 하는 일을 통해 문화정책이 풀뿌리로 스며들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가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명실상부한 지역문화진흥의 시대가 열리길 기대합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사업 중 지역문화재단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대표적인 사업을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지역문화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문화적인 활력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돕기 위한 예술가, 기획자, 교육자들의 매개 역할 비중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섬머아카데미-예술로 가로지르기’ 사업이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청년문화기획자 양성을 위한 다사리 문화학교 등을 통해서 예술가들과 기획자들의 역량을 높여 활용영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 문화재단에서도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헌신하는 매개자들을 육성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해

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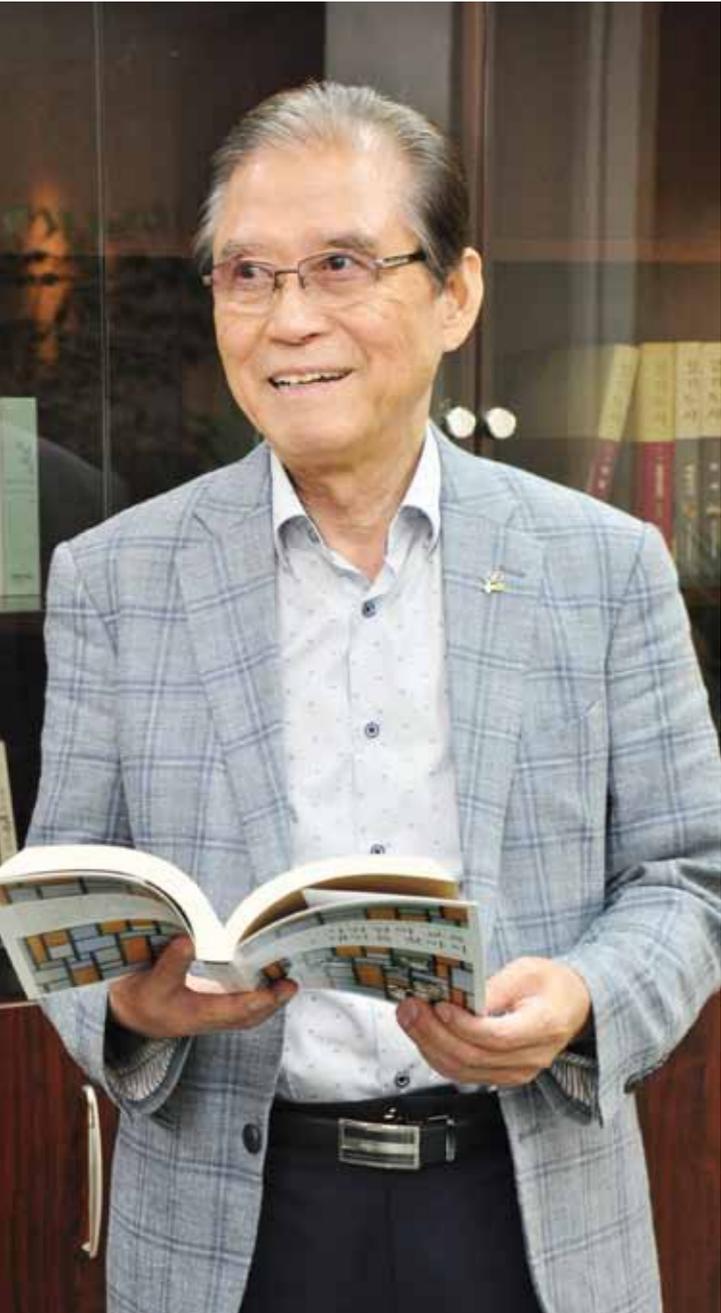
경기문화재단과 시군 문화재단의 협업 네트워크가 중요한데요. 주요 협업 분야가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요.

“비록 사업은 아니지만 경기문화재단이 지난 17년 동안 쌓아온 문화예술행정 역량과 비전체계를 기초 문화재단들이 함께 공유하고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경기 문화예술의 협치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경기도의 문화비전을 함께 만들어 가고 소통하면서 공동으로 성장시켜야 “따로 또 같이”의 동반성장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12개 기초문화재단들과는 지역협력형 사업을 상호 매칭방식으로 운영해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용인문화재단과의 뮤지엄파크 페스티벌 등과 같이 프로젝트 기반의 공동사업, 용인/화성문화재단과 공동주최한 ‘행복수업’ 등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경기도를 권역별로 나누어 문화재단들이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문화권역별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일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단에서 펼치고 있는 문화이음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습니까. 지역문화재단에서도 가능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이음’ 사업은 지역문화재단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재원유치 및 민관협력 사업입니다. 그동안 문화재단들이 공공이라는 우산아래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운영해왔다는 평이 있었는데요, 우선 공공재원외에 민간의 재원을 다각적으로 유치해서 사업의 성격을 더욱 고객 중심으로 재편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문화이음’ 사업은 거액기부와 소액기부로 나누어 추진했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 현금 및 현물 등 약 10억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문화재단에서는 거액기부보다는 시민사회와 문화예술계가 함께하는 소액기부 확산운동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지역문화재단들의 지역 내 기반을 공고히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기꺼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산문화재단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남겨 주십시오.

“지난 세월호 참사로 안산이 침울합니다. 경기도도 같은 상주가 된 입장으로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고, 안산에 있는 경기도미술관은 현장에서 유무형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현안이 있을 때 좀 더 유연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는 안산과 경기도민을 위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안산문화재단은 경기도 서부권역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근 반월시화 산단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서해안을 활용한 역사문화와 창작거점 지원사업도 가능할 것입니다. 경기문화재단과 안산문화재단은 같은 소명을 가진 동지이자 형제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력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잡스럽게, 재기발랄하게! 경기잡가를 새롭게 열어나가는

소리꾼 이희문

경기잡가는 조각보와 같은 노래이다.
울긋불긋 다채로운 색상과 곁이
다른 천 조각이 한데 어우러져 생동하는
멋을 자아내듯이,
기쁘고 슬프고 애잔하고 호방하며
피 끓는 마음의 조각들이 섞여
자유분방한 민중의 노래가 되었다.
다양성이 생명인 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꾼은 두루 실력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소리를 시작하지 불과 5개월 만에
세상을 놀라게 한 소리꾼이 있다.
바로 이희문이다.



“말 잘하는 앵무새, 춤 잘 추는 학 두루미, 문채 좋은 공작 / 공기적다 공기 푸루루루룩 속궁 접동 스프라니 호반새 날아든다 / 기러기 훨훨 방울새 떨렁 다 날아들고 / 제비만 다 어디로 달아나노.”

2003년 10월, 경기도 소리공연대회. 경기잡가 중 제비가가 신명나게 끝났을 때 심사위원석은 술렁였다. 소리판에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청년이 소화하기 어려운 고음부와 비약적인 가락이 풍부한 이 노래를 제 노래인 양 갖고 노는 모양새가 일품이었다. 소리를 시작한 지 5개월 되었다니 놀람을 넘어 당황스러움이 심사위원석을 감쌌다. 1등 상을 주기 충분한 실력이었으나 2등 상인 은상을 준 것은 이 소리꾼이 재간만 많아 반짝 떴다가 질 별인지, 뻗속까지 풍류가 흘러 생이 다하는 순간에도 세상에 경기소리의 기운을 더할 소리꾼인지 지켜보겠다는 뜻이 담긴 듯했다.

소리 입문 5개월 만의 수상이라는 초유의 사건, 그 주인공은 당시 28세의 청년 이희문이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 그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12잡가 이수자로 경기소리 인생을 울곧게 그러나 펍 ‘잡스럽게’ 걸어가고 있다.

경기잡가, 잡(雜)스러움을 살리다

경기민요와 함께 경기소리를 이루는 경기12잡가는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집장가, 소춘향가, 형장가, 평양가, 선유가, 십장가, 출인가, 방물가, 달거리의 12곡을 가리킨다. 여기서 잡가란 단순히 뭔가가 뒤섞였다는 뜻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노래를 아울러 만든 독특한 장르라는 의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잡가는 18, 19세기 서민문화와 양반문화의 경계가 모호하고 사회·경제적으로 계

층 간의 이동이 일어나던 변화의 시기에 태동했다. 절제된 양반 중심의 문화에서 서민문화가 대두되면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노랫말, 곡, 가창법 등이 모두 한데 어우러졌다. 예컨대 경기12잡가 중 ‘제비가’의 경우 판소리 춘향가의 ‘사랑가’와 흥보가의 ‘제비후리는 대목’, 민요 ‘새타령’ 등이 과감하게 어우러져 있다. 이처럼 다양한 노래를 소화해야 하므로 경기잡가의 소리꾼은 각각의 장르를 아우르고 고음과 저음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14분 정도의 긴 시간동안 온전히 몰입하여 감정의 정수를 뽑아내야 한다.

이희문은 경기잡가의 이러한 ‘잡(雜)스러움’에 빠진 소리꾼이다. 하여 그는 전통소리꾼뿐만 아니라 현대무용가, 현대음악가 등 장르를 넘나드는 전방위 예술가들과 함께 폭넓은 장르가 융합된 21세기의 연회를 펼치고 있다. 오늘날 퓨전 음악 공연에서 우리의 소리가 현대음악에 맞을 더하는 조연정도로 자리매김하는 데 비해 그의 공연에서는 경기잡가가 탄탄한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오늘날의 정서가 녹아든 재기발랄한 연회를 펼친다. 2008년 그의 이름을 딴 소리 연주회 ‘희문(熙文)’을 처녀작으로 선보인 이래 해마다 경기소리 신작 공연을 올리고 있다. 소리프로젝트 ‘거침없이 얼씨구’는 ‘집에서 밥하다 나온 어머니들과 함께 무대를 만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엉뚱한 호기심에서 만들어졌고, ‘황제, 희문을 듣다’는 고종황제시절에 가무별감을 지냈던 경기명창 박춘재를 모티브로 하여 민속악이었던 경기잡가가 궁중에서 연주되기 위해 음악적으로 변화를 보였던 사실을 소재로 해서 그만의 스타일로 변화시킨 것이다.

오는 10월에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에서 경기잡가가 자아내는 다채로운 풍경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오더메이드 레퍼토리 잡(ZAP)을 선보일 예정이다. 뒤이어 12월에 신작을 선보인다니 그 창작 에너지가 뜨겁다.

“초등학생 때는 가수 민해경의 팬이었어요. ‘그대 모습은 장미’에 열광했죠. 노래도 멋지지만 가수의 스타일에 푹 빠졌어요. 가수의 꿈을 키우다가 일본에 가서 영상을 공부했어요. 귀국해서 뮤직비디오 조감독을 했습니다. 감독으로 입봉을 앞둔 소리꾼으로 방향을 전환했고요. 경기잡가와 전혀 관련 없는 길을 걸어온 듯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잡가를 하기엔 더없이 좋은 ‘잡스러운’ 삶을 맛본 것 같아요. 경계 또는 한계를 두지 않는 경기잡가의 열림! 그것이 바로 잡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슬프되 슬픔에 함몰되지 않고, 즐겁되 도를 넘지 않는 경기잡가의 위트있고 재기발랄한 음악적 지향이라까 철학도 제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입니다.”

이희문은 소리꾼이면서 서울예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스승이며 공연집단 이희문컴퍼니를 이끄는 리더이다. 20대 여성소리꾼 그룹 ‘앵비’, 평범한 어머니들로 구성된 ‘숙씨스터즈’, 20대 꽃미남그룹 ‘눔눔’ 등 다양한 프로젝트그룹의 기획자이자 연출자로서 경기소리의 현대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다양한 삶의 결을 만들 수 있는 저력도 그가 지향하는 ‘잡스러움’과 ‘재기발랄’에서 나오는 것이라라.

세 어머니, 세 빛의 사랑

소리꾼 이희문은 세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한다. 낳아주신 어머니 고주랑 명창은 그에게 ‘모태

소리’를 심어주셨다. 그러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소리꾼을 제안한 적이 없었다. 외롭고 힘든 예인의 길에 핏줄을 세우지 못한 모정이었다. 그가 어릴 적부터 이모처럼 따르던 이춘희 명창은 그가 소리꾼 재목임을 알아봐준 어머니였다. 그가 경기소리를 흥얼거리는 것을 듣고 단박에 알아본 이 명창은 “희문아, 소리 해보지 않을래?” 하고 제안했고 그가 얼마간 연습해서 그의 앞에서 긴아리랑을 부르자 “넌, 꼭 소리해야겠다!”고 확신을 담아 얘기했다. 이희문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고 한다. 그의 세 번째 어머니는 현대무용가 안은미씨이다.

“경기소리를 시작하지 3, 4년쯤 지나서 안은미 선생님을 만났어요. 소리꾼은 소리무대에서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판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신 어머니죠. 소리의 길을 가면서 제게 이런저런 고민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그 고민을 단칼에 해결해주셨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하면 ‘세상에는 안 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경기소리와 현대의 춤이 그토록 멋지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고민 많은 무대도 선생님의 손길이 닿으면 세련미의 극치를 자아냅니다.”

함께 걷는 아름다운 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할 줄 아는 어른이 된다고 했다. 자그마치 세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을 듬뿍 받아서일까. 소리꾼 이희문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정이 많다. 특히 그는 서로 전혀 다른 에너지를 지닌 장영규, 이태원 감독과의 인연을 얘기하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국악을 전공하신 이태원 선생님은 강한 이론을 토대로 즉흥적인 곡을 만드는 데 탁월하시죠. 베이스기타 연주자이시기도 한 장영규 선생님은 이국적인 유러피안의 감수성이 풍부하십니다. 좌우의 날개로 나는 새처럼 개성이 강한 두 선생님께 배우면서 색다른 노래의 날개 두 개를 얻는 느낌입니다. 그 노래의 날개 위에서 참 행복합니다! 또, 저와 함께 하는 공연팀과 굳이 말하지 않아도 호흡이 맞을 때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빨리 가려면 홀로 전력질주를 하면 된다. 그러면 그 길가에 핀 꽃이며 새들의 노랫소리를 놓치게 된다. 인생은 남들을 제치는 속도전이 아니다. 홀로가 아닌 함께, 달리는 것이 아니라 춤추듯 즐겁게 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길이다.

“같은 팀은 물론 관객과 하나 되고 ‘잡스럽게 잘한다!’ 소리를 듣는 예인이 되려면 연습이 부족하면 안 되죠!”라며 다음 공연 준비를 위해 공연장으로 향하는 소리꾼. 그의 걸음걸이가 산들바람에 춤추는 나비 같았다. 

ASAC

STAGE

22 . . . ASAC 우수소극장 시리즈9

24 . . . 아침음악살롱4

26 . . . ASAC 공연예술제

28 . . . 오픈스페이스 프로젝트

30 . . . ASAC 특별프로그램 _ 몸짓페스티벌



연극 <로풍찬 유랑극장>

날짜.
2014. 10. 16(목)~19(일) 2일 4회 공연

시간.
목, 금요일 8시, 토요일 3시, 7시,
일 2시, 6시(100분 소요)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관람료.
25,000원 (만14세 이상 관람가)
10인 이상 단체 30%

대본. 김은성
연출. 부새롬
원안. 류보미르 씨모비치<쇼팔로비치 유랑극단>
제작. 극단 달나라 동백꽃
출연.
선종남, 이지현, 박성연, 마두영, 강말금, 전석찬,
배선희, 강기동, 이지혜, 노기용, 윤혜숙

예매처.
콜센터 080-481-4000
인터파크 1544-1555
단체문의 031-481-4022

연극다운 연극에 목마른 관객을 위한 추천작

한국 연극계의 기대주 김은성, 부새롬 콤비의 재창작 시리즈 완결판

차원이 다른 고급스러운 정통 신극의 진수를 맛보다.
[로풍찬 유랑극장]은 세르비아 작가 류보미르 씨모비치의 명작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을 모티브로 김은성 작가가 재창작한 작품으로 참혹한 전쟁 중에도 연극을 하기 위해 유랑 길을 떠도는 배우들이 작은 마을에 머물며 그곳의 사람들과 겪게 되는 사건을 통해 연극의 숭고한 의미를 되돌아보는 내용이다. 김은성 작가는 원작의 내용 중에서 전쟁 중에도 연극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유랑극단의 의미에 주목, 원작의 시공간을 1950년 6월 24일, 한국전쟁 발발 하루 전의 전라남도 보성의 새재마을로 옮겨왔다.
여순반란사건 이후 좌,우 대립이 극심한 상태에서 빨치산과 토벌대 사이에서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이 전개되고 있는 마을을 찾아가는 유랑극단을 통해 전쟁과 인간, 삶과 연극을 돌아보는 우리 이야기로 재창작했다. 이미 연극 [뽕]을 통해 구수하고 정감어린 전라도 사투리의 묘미를 보여줬던 그는 이번 [로풍찬 유랑극장]을 통해 한층 더 능란한 사투리를 구사, 남도 젓갈처럼 맛깔나는 전라도 사투리의 진수를 선사할 것이다.

갈수록 허약해지는 이 시대, 관객들에게 왜 연극을 봐야하는지, 연극인들에게 왜 연극을 하는지 이야기해주는 작품!

<로풍찬 유랑극장>은 1950년 6월 24일, 한국전쟁 발발 하루 전 전라도 보성 새재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시대극이다.

좋은 시대극은 과거의 한 지점을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리하게 분석해 냄으로써 새로운 역사적 관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동시대를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해내는 작품일 것이다.

<로풍찬 유랑극장>은 1945년 해방에서 1950년 전쟁까지의 시간을, 전면전의 예고편을 겪고 있던 새재마을의 하룻밤 사건으로 응축시켜 보여준다. 사건은 뜬금없게도 ‘연극’을 하는 ‘유랑극단’을 통해 전개된다. 왜 하필 연극인가?

학살과 복수가 반복되는 폭력과 야만의 시대에서 상처받은 인물들은 묻는다.

“연극 안 본다고 굶어죽느냐?”

배우들은 답한다.

“연극은 사람이 왜 먹고 살아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거다. 쌀보다 진귀한 거다.”

줄거리

1950년 6월 24일, 전라남도 보성의 아름다운 강변 마을 ‘새재’에 전국을 떠돌며 회충약 산토카라멜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로풍찬 유랑극장’이 찾아온다. 신극단, 악극단, 여성극단 출신 등 다양한 이력을 지닌 단원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번안한 <노민호와 주인애>를 공연하려고 하지만 신원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경찰지서에 연행되어 혹독한 수모를 겪고 풀려난다. 우여곡절 끝에 장터에 가설무대를 설치하게 된 단원들은 장터 여관에서 빨치산 아들을 둔 김삼랑 부부와 여순사건 당시 남편을 잃은 양정순을 만나게 된다. 그들

로부터 끔찍했던 반란사건 이후 빨치산과 토벌대가 낮밤을 바꿔가며 대치하고 있는 새재마을의 현실에 대해서 듣게 된다. 특히 우익청년단원인 이른바 빨갱이백정 피창갑의 존재를 목격하고 긴장한다. 하루걸러 시체에, 한집 걸러 초상집인 곳에서 연극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좌익지하조직원의 서늘한 태도도 단원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지만 결국 ‘로풍찬 유랑극장’은 연극을 올리기로 결심하고 연습에 집중한다. 공연은 대성공.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물론 단원들을 괴롭혔던 경찰까지 눈물을 흘리며 연극을 보게 된다. 연극이 끝난 후 흥겨운 막걸리 잔치판이 벌어진다. 신분과 이념을 넘어 모두가 어울려 춤을 추고 논다. 바로 그 때 대대적인 빨치산 섬멸작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을은 다시 혼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데.....

작가소개 (김은성)

1977년생. 극작가. 극단 달나라동백꽃 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출과 졸업.

공연 작품

목란언니, 뽕, 시동라사, 연변엄마, 달나라연속극, 순우삼촌, 찌질이신파극, 죽도록죽도록, The Author(윤색), 우리말고 또 누가 우리와 같은 말을 했을까(공동창작)

연출소개 (부새롬)

1976년생. 연출가, 무대디자이너. 극단 달나라동백꽃 상임연출. 연세대학교 극예술연구회 활동. 무대예술아카데미 6기 무대디자이너과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출과 전문사 졸업.

연출 작품

뽕, 달나라연속극, 찌질이신파극, 배신, Lovely Rita

아침음악살롱 4 ‘음악의 정원’

편안한 해설이 함께 하는 이야기가 있는
음악의 정원으로 초대합니다!

2014ASAC아침음악살롱 네 번째 무대는 완전한 가을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해설이 함께 하는 음악 회로 문을 연다. ‘음악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꾸며지는 이번 아침음악살롱은 해설과 노래를 담당하는 테너 박승희와 피아니스트이자 첼발리스트인 김현애가 르네상스 음악부터 현대 한국가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해설을 곁들이며 선보인다

아름다운 연주와 흥미로운 설명이 어우러지는
해설음악회

테너 박승희는 서울대 성악과와 독일 카를스루에 국립음대를 졸업한 후 스위스 고음악학교인 스킨라칸토름 바젤에서 게르트 튀르크를 사사했다. 고음악 전문연주자로서 뛰어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그는 현재 연세대음악연구소와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음악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다. 피아니스트이자 첼발리스트인 김현애는 바로크 발성을 사용하는 테너 박승희와 어울리게 독일 유학시절 하이델베르크대 교회음악 전문과정과 카를스루에대 첼발로 전문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야유野遊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클래식 소품들의 매력과 장점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들로 꾸며질 무대...

이번 안산 무대에서는 몬테베르디의 맨발의 요정, 모차르트의 사랑하는 치티여와 고요한 평안, 스칼라티의 오랑캐꽃, 내 마음에 느껴지네, 사르티의 그리운 님을 멀리 떠나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편안한 해설과 함께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연주자들의 전용 공간처럼 느껴지던 무대에서 연주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연주를 보고 듣고 악기의 떨림을 온 몸으로 직접 느껴볼 수 있는 마룻바닥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2014ASAC아침음악살롱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는 사라지고 연주자와 가까운 거리에 앉아 음악을 감상하게 된다. 이번 공연에서는 아직은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클래식이라는 장르의 매력을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고 관객과 연주자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새로운 경험의 시간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바쁘게 사는 일상 속에서 하루쯤은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음악과 차 한잔의 여유로 편안하게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 공연 종료 후,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음악살롱4 <음악의 정원>

날짜.
2014. 9. 25(목) 11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관람료.
전석 18,000원

출연.
음악의정원(박승희, 김현애)



2014 ASAC

공연
예술제
PERFORMING
ARTS FESTIVAL

공연일정 2014. 10. 8(수)~11(토)/4일 4회
 공연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참가단체 안산지역극단
 주 최 (재)안산문화재단
 주 관 (사)한국연극협회 안산시지부
 관 람 료 전석 15,000원(청소년 50%할인)
 예약문의 080-481-4000

ASAC 공연예술제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협업을 통한 교류 및 공유를 위한 2014 ASAC공연예술제가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재)안산문화재단은 공연예술을 통해 지역 예술단체와 상호 밀접한 협력으로 지속적인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예술단체의 창작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본 예술제를 마련하였으며, 올해로 4회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예술제에는 두 작품이 올라가는데 모두 창작극이다. 옴니버스식으로 구성될 두 작품은 지역예술인들이 희곡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만들어 간다. 창작 희곡부터 무대 제작까지 지역예술인들이 합심하여 창조적 마인드를 고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한 단계 성숙한 제작환경의 완성도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메인 공연 외에도, 매 공연 30분전 극장 로비에서 작은음악회도 마련하여 한층 분위기를 북돋을 것이다. 안산문화재단은 꾸준한 지원활동을 통해 지역의 기성 극단부터 새내기 극단까지 지역문화예술의 화합의 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감동적인 작품으로 한걸음 다가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ASAC공연예술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방향성 제시와 꾸준한 협업 및 공동작업을 펼쳐, 안산지역의 공연예술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창작능력 배양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지원과 상생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예술제는 본래 6월에 개최하기로 했으나, 세월호 사고로 인한 아픔을 분담하고 위로하고자 10월로 연기하였다. 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분담하고 나아가 본 예술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감동적인 무대가 되기를 기대를 해본다. 

공연프로그램

공연일정	시간	작품명	비고
10. 08(수)	18:00	RAINY DAY	Bridge공연 (기타, 색소폰 등)
	19:30	참을 인 0번	
10. 09(목)	15:00	참을 인 0번	
	17:00	RAINY DAY	
10. 10(금)	18:00	RAINY DAY	
	19:30	참을 인 0번	
10. 11(토)	15:00	참을 인 0번	
	17:00	RAINY DAY	



ASAC 오픈스페이스
프로젝트 4. [전통음악]
오더메이드 레퍼토리 <잡>

ASAC 오픈스페이스
프로젝트 2014년 마지막 무대
이희문 컴퍼니의
'오더메이드 레퍼토리 잡'

기성복을 벗어던진 잡가, 진정 '잡雜'이 되다!
여러 가지가 마구 뒤섞인, 천박하다는 뜻의 '잡雜'. 소리꾼 이희문이 옛 노래인 '잡가'로 그의 소리 친구들과 잡스러운 쇼를 벌인다. 12잡가에 담긴 인생의 희로애락을 노래하며 무대 위를 유랑하는 소리꾼들과 화려한 영상으로 펼쳐내는 음악의 풍경. 오더메이드 레퍼토리 잡ZAP은 잡가에 담긴 이상야릇한 매력과 진정한 의미를 관객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희문 :
“경기잡가는 조선후기 즈음에 서울에서 잡스럽게 만들어진 소리예요. 대부분 12가사와 비슷하면서, 서울에서 유행하던 판소리를 잘라서 유행가처럼 부른 것도 있죠. 아무튼 그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던 음악이죠.”

- 출처 네이버 문화산책

지상 최대의 잡꾼들이 선사하는 노래의 향연,
이 쇼 안에서 모두가 잡스럽게 존재하시길!

이희문컴퍼니는 소리꾼 이희문을 주축으로 장르를 넘나드는 전방위 예술가들이 모인 집단이다. 이희문은 변방에 놓인 시조, 가곡, 가사, 잡가, 경서도 민요 등 다양한 전통 성악을 공연의 중심으로 끌어와 성질이 다른 장르들과 접합한다. 그렇게 창조한 무대 위에서 관객에게 옛 노래를 듣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오고 있다.

출연진

이희문, 신승태, 김미림, 이미리, 최주연

스태프

연출 안은미, 작곡/음악감독 장영규, 이태원, 음향 김병진(연음향), 조명 장진영, 영상디자이너 이태석

이희문컴퍼니(대표 : 이희문)

이희문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를 이수했다. 2012년 제16회 전국민요경창대회 종합부문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대통령상을 수상한 실력자로 현재 이희문컴퍼니의 대표로 활동 중이며 서울예술대학교, 중앙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에 출강하며 후학을 양성 중이다. 전통무대만을 고집하지 않고 장르를 넘나드는 젊은 소리꾼. 장영규, 이태원, 안은미 등 음악계와 무용계 전방위 예술가들과 합심하여 전통성악 '잡가'의 가치를 조명하고 오픈스페이스 프로젝트 4번째 공연으로 선정된 이번 기회로 발전 가능성을 검증받고자 한다. 

공연 예술인을 위한 안산문화재단 공간지원사업

오픈스페이스 프로젝트는 2009년부터 시작된 안산문화재단 공간지원사업입니다.

공연장 무료대관 (별무리,140석)과 티켓판매액 전체를 공연단에 귀속하여 예술가들이 오픈스페이스 프로젝트를 발판삼아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문의 031-481-4022)



오더메이드 레퍼토리 <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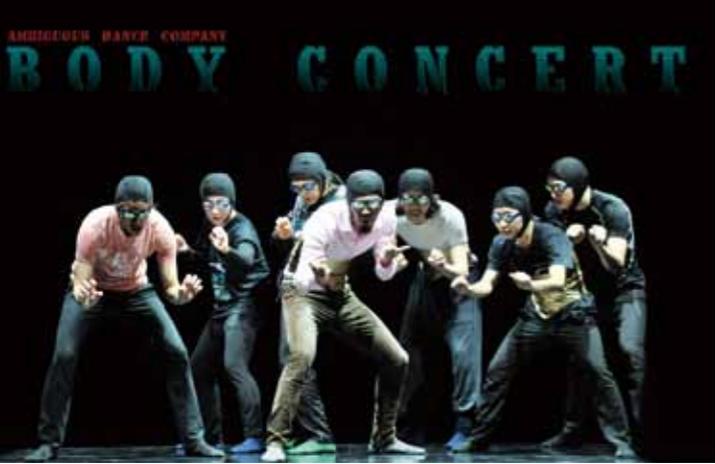
날짜.
2014. 10. 25(토)~26(일)

시간.
토요일 3, 7PM 일요일 5PM
(70분, 15세 이상 관람가)

관람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고등학생 이하)

연출 안은미
작곡/음악감독 장영규, 이태원
음향 김병진(연음향)
조명 장진영, 영상디자이너 이태석
출연 이희문, 신승태, 김미림, 이미리, 최주연
제작 이희문컴퍼니
주최 (재)안산문화재단

에매저.
콜센터 080-481-4000
인터파크 1544-1555
단체관람문의 031-481-4022



ASAC 특별프로그램

- 〈몸짓페스티벌 I〉
- 〈몸짓페스티벌 II〉
- 〈몸짓페스티벌 III〉
- 〈몸짓페스티벌 IV〉



공연명	ASAC몸짓페스티벌 <특별프로그램>
일시	9. 27(일) 오후 4시
장소	해돋이극장
관람료	전석 1만원
출연	통영승전무보존회, 김경희무용단, 오정해&국악그룹목수도, 한승석&정재일



공연명	ASAC몸짓페스티벌 II <사랑의 찬가>
일시	10. 14(화) 오후 7시 30분
장소	달맞이극장
관람료	전석 2만원
출연	SEO(서)발레단



공연명	ASAC몸짓페스티벌 III <몸짓콘서트>
일시	10. 18(토) 오후 3시, 오후 7시
장소	달맞이극장
관람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출연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 LDP무용단 외



공연명	ASAC몸짓페스티벌 IV <가족무용극 에미>
일시	10. 21(화) 오후 7시 30분
장소	달맞이극장
관람료	전석 2만원
출연	박명숙무용단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ASAC몸짓페스티벌”을 9월 2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선보인다. 춤, 움직임 등 몸짓으로 소통하는 공연은 난해하고 지루하다는 선입관을 넘어, “몸짓페스티벌”을 통해 암호를 풀어 나가듯 몸짓 언어의 소통방식을 두루 살펴보고 다양한 몸짓과 움직임을 통해 관객들이 쉽고 흥미롭게 새로운 언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몸짓 언어의 소통 확장과 그 과정을 통한 다양한 소통방식의 실험을 위해 기획된 이번 페스티벌은 세월호 사고의 충격과 슬픔에 빠진 시민들을 위로하고자 기획되었던 열린무대-Remember Forever 공연의 연장선상인 특별프로그램을 시작으로 9월 27일 해돋이극장에서 그 첫 번째 문을 연다.

첫 번째 무대인 특별프로그램에서는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춤무공 이순신 장군의 승전을 축하하는 내용의 무형문화재 제21호인 “승전무”와 판소리와 피아노의 만남과 그에 더해지는 장구, 징, 쇠, 베이스, 기타 등의 사운드로 국립극장 공연의 매진사례를 일으켜 큰 이슈를 낳았던 “한승석&정재일”, 영화배우이자 이 시대의 진정한 소리꾼인 “오정해와 국악집단 목수토”가 함께 한다.

이어 10월 14일(화) 본격적인 축제 프로그램으로 선보이는 두 번째 무대는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로 SEO(서)발레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천상의 목소리인 피아프의 원곡을 바탕으로 배우의 독백을 통한 내면연기와 신체언어의 극치를 이루는 무용을 결합해 아름답고 호소력 강한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인 10월 18일(토) “몸짓콘서트”에서는 이 시대 최고의 춤꾼들이 보여주는 개성 넘치는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 현대무용의 ‘한류’를 자극할 수 있는 수작이라는 평을 받은 ‘바디콘서트’로 ‘김보람’이 이끄는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와 ‘신창호’, ‘이선태’, ‘류진욱’, ‘안남근’ 등이 소속되어 있는 ‘LDP무용단’의 대표작인 ‘신창호’ 안무의 ‘노코멘트’가 공연된다. 이외에도 모 방송을 통해 댄스 돌풍을 일으킨 또 다른 두 주역이 무대를 꾸며갈 예정이다.

“ASAC몸짓페스티벌”은 ‘몸짓’이라는 언어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경험, 그리고 다양한 접근이라는 본질적인 방향 외에도 ‘지역’의 몸짓과 움직임 활동에 말을 건네는 섹션으로 ‘지역’에 시선을 던진다. 작년에 안산을 찾은 ‘김경희무용단’의 한국무용과 ‘백영태발레류보브’에 이어 올해는 ‘박명숙무용단’의 가족무용극 <에미>가 10월 21일(화) 몸짓페스티벌의 마지막 무대에서 공연된다. ‘에미’는 치매에 걸려 가족들로부터 소외된 할머니의 시각으로 도시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서글픈 여자의 일생을 조명하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모성을 찬미하는 작품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 역사 속의 여성에 대한 편견, 삶의 의미와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게 하는 작품이다. 올 가을 ASAC몸짓페스티벌에서는 더욱 완성도 높은 공연을 위해 안산을 찾는 국가대표급 공연자들을 만나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CULTURE TREND

34 테마가 있는 미술 _ 내셔널 갤러리

40 테마가 있는 공연 _ 극단 골목길

44 테마가 있는 음악 _ 오페라속의 춤

50 칼럼 _ 4부, 조절음악치료 5~6단계의 이론강해



오정해 & 국악그룹 목수토

■ 테마가 있는 미술 - 세계의 미술관(4)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 암굴의 성모에서 해바라기까지



트라팔가 광장은 영국 런던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중요한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 사통팔달의 장소로 런던 시내 대부분의 관광지가 이곳에서 사방으로 뻗어 위치한 까닭이다. 1805년 스페인 남부의 트라팔가에서 벌어진 해전에서 프랑스·스페인 연합군을 격파하고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여 조성된 이 광장에는, 승리의 주역인 넬슨 제독의 동상과 아름다운 분수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런던의 명소, 내셔널 갤러리가 자리하고 있다.

내셔널 갤러리의 탄생과 역사

오늘날 내셔널 갤러리는 한해 약 603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세계 4위 규모의 미술관이다. 영국 최초의 미술관으로 1824년 러시아 출신의 금융가이며 미술애호가였던 존 앵거스타인이 보유하고 있던 회화 작품 38점을 영국 정부가 5만 7000파운드에 구입한 것을 계기로 탄생하였다. 현재의 위치인 트라팔가 광장에 미술관 건물을 조성하여 개관한 것은 1938년의 일이다. 건축은 신고전주의 건축의 대가인 윌리엄 월킨스(1778~1839)가 담당하였다. 그는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의 킹스칼리지를 비롯하여 트리니티칼리지, 코퍼스 크리스티칼리지 등을 설계하여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었다. 영국 최초의 공립미술관 건립을 의뢰받은 월킨스는 당시 트라팔가 광장에 위치하고 있던 왕실의 마구간 구조를 그대로 살려 미술관 건물을 설계하였다.



1. 내셔널 갤러리의 전경

내셔널 갤러리는 소장품의 3분의 2가 영국의 개인 소장가들의 기증으로 이루어진 미술관이다. 당초 앵거스타인의 컬렉션은 팔물가에 위치한 앵거스타인의 집에 전시되었으나, 협소한 장소 탓에 관람에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1826년 풍경화가이자 수집가인 조지 보몬트 경의 컬렉션과 1828년에는 윌리엄 홀웰 카 목사의 34점의 회화가 기증되면서, 팔물가의 전시 장소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다.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로 건물이 내려앉기 시작하자 인근의 넓은 공간을 찾아 이전했지만, 역시 비좁은 실내와 열악한 환경으로 불만이 쏟아졌다. 당시 영국 언론은 1793년 이미 루브르 미술관을 개관한 프랑스와 비교하면서 자국의 형편없는 문화적 상황을 비판하였다.

국립 미술관의 필요성을 인식한 영국 의회는 1831년 미술관 건립을 결정하고 장소 물색에 나섰다. 오랜 기간의 검토 끝에 런던의 부유층이 거주하는 서부와 서민 거주지역인 동부의 중심으로 모든 런던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트라팔가 광장의 마구간 자리가 최종 선택되었다. 윌킨스는 1832년 공사를 시작하여 6년 만에 미술관을 완공했다. 접근성이 뛰어나 개관 이래 미술관은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이에 1857년에 사우스 켄싱턴 미술관이, 1859년에 국립 초상화 미술관이, 1897년에는 테이트 갤러리가 인근에 연이어 개관하면서, 19세기 후반 런던은 미술관의 도시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주옥같은 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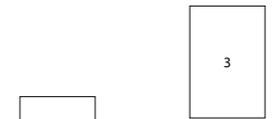
내셔널 갤러리의 명성은 무엇보다 어마어마한 소장품의 가치에 근거한다. 개관 이후 기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1869년 7개의 전시실을 증설하고, 1991년에는 미술관 서쪽을 확장 건축하여 세인트베리관을 개관하였다. 현재 축구장 6개의 넓이에 달하는 6396㎡의 전시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곳에는 13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까지 유럽의 회화 2,300여 점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세인트베리관을 출발점으로 작품이 연대순으로 전시되어 있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가면 미술사의 흐름에 따라 관람이 가능하다. 초기 르네상스에서 인상주의까지 어느 특정 사조를 꼽을 수 없을 만큼 모든 시기의 컬렉션이 뛰어나다. 지면의 한계

를 고려하여 본 글에서는 대표적인 작품 세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주목할 작품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작품 <암굴의 성모>이다. 같은 주제, 같은 구도의 작품이 두 점 그려졌는데, 하나는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었으며, 나머지는 이곳 내셔널 갤러리에 있다. 루브르의 소장품에 비해 후대에 그려진 탓에 한때 레오나르도의 조수들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다 빈치가 혼자 완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은 기암괴석이 늘어선 동굴 속에 청록색 옷을 입은 성모 마리아와 그녀의 오른편으로 어린 세례자 요한을, 왼편으로 가브리엘 천사와 아기 예수를 삼각형 구도로 배치하고 있다. 십자가를 손에 든 세례 요한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있으며, 아기 예수는 이에 답하여 오른손을 들어 축복의 수인을 보이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동굴 입구에서 비쳐드는 빛을 통해 미묘한 빛과 그림자로 인물들을 부드럽게 묘사하는 다 빈치의 기법이다. 일명 스푸마토라고 불리는 회화방식인데, 윤곽선을 그리지 않고 경계를 희미하게 그림으로써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작품 역시 어두운 동굴 속의 어슴푸레한 빛을 통해 대상의 형태감을 살리면서도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인물들을 생명력 있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플랑드르 르네상스의 대가 얀 반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도 빼놓을 수 없는 내셔널 갤러리의 보배이다. 그림은 벨기에 브뤼주 지역의 은행가인 지오바니 아르놀피니와 그의 부인을 그린 초상화이다. 15세기 플랑드르의 신혼 갑부들은 이전의 귀족 계급과는 달리 당대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담은 화풍을 선호했고, 아르놀피니는 경건한 결혼 생활에 대한 서약을 전면에 내세운 본 초상화에서 경제적 부를 과시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세속적 욕망을 함께 투영해 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세밀한 묘사 방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주인공 남성의 모피 털은 만지면 미끄러질 듯 부드러우며, 강아지의 털은 한 올 한 올 사실적으로 살아있다. 샹들리에에는 진짜 금속을 잘 닦아놓은 듯 반짝이고, 거울 왼쪽에 걸린 목주는 투명한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난다.

미술관의 북관에는 17세기 이후의 작품들이 위치하고 있다. 네덜란드 풍경화와 정물화 컬렉션이 뛰어난데 렘브란트, 베르메르 등 북



2. 레오나르도 다 빈치, <암굴의 성모>, 1507년경.
내셔널 갤러리 소장
3. 얀 반 에이크,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1434년.
내셔널 갤러리 소장



유럽 작가들의 작품이 특히 볼 만하다. 뒤이어 동관으로 이동하면 공간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고흐, 세잔 등 ‘빛의 화가들’이라고 불린 인상주의자들의 작품이 전시장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이 중 고흐의 <해바라기>는 뛰어난 미술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이다. 아를의 작업실을 공유했던 동료화가 고갱에게 선물하기 위해 처음 그리기 시작한 해바라기 연작은 총 5점을 완성하였다. 내셔널 갤러리의 소장품은 1888년 완성되었다. 황금빛 향기를 뿜어내는 고흐의 해바라기는 마치 태양처럼 불타오르는 듯 보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꿈틀대며 살아 움직이는 듯 보인다.

미술관에서 시작하는 런던의 일상

올해 초 내셔널 갤러리는 고흐의 <해바라기>에 관한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내셔널 갤러리의 해바라기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 소장의 해바라기를 함께 비교하면서 감상할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일 년의 차이를 두고 완성된 두 작품은 같이 걸어두고 보지 않으면 그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작품들이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두 미술관은 협력을 통해 작품들을 한자리에 걸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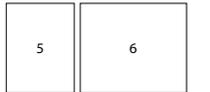
전시에 대한 런던 시민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필자가 여유를 부리며 오후에 미술관을 찾은 첫날은 결국 끝이 보이지 않는 대기자 줄을 보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며칠 후 주말 아침 미술관이 문을 열기 전에 서둘러 다시 찾았는데, 역시 입을 다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이미 100미터가 넘게 관람객들이 줄을 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말 아침 일찍 줄을 선 사람들은 관광객이 아닌 대부분이 런던너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미술관이 위치한 트라팔가 광장은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 런던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들의 집결지이자, 런던너들의 약속 장소이다. 따라서 거의 매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미술관 앞에 늘어선다. 이들 중에는 런던을 찾은 관광객들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런던의 시민들이다. 입장을 기다리며 대화를 나눈 한 젊은 런던너는 대부분의 주말을 내셔널 갤러리 관람으로 시작한다고 하였다. 특별전을 포함한 모든 전시가 무료인 탓에 언제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전시를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야 친구와 커피를 마시거나 다음 일정을 위해 이동한다고 하였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내 집 거실처럼 둘러앉아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 친구와 답소를 나누며 산책하듯 작품을 감상하는 벡타이 맨 중년신사, 그리고 작품 앞에 놓인 소파에 앉아 여유 있게 거장의 그림을 감상하는 노인의 모습이 쉽게 눈에 띄었다. 그들에게 미술관은 더 이상 고상하고 딱딱한 장소가 아닌 그저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적 공간이었다. 

글 강은주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학예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이화여대와 한양대, 계원예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4. 빈센트 반 고흐, <해바라기>, 1889년, 반 고흐 미술관 소장
5. 고흐의 <해바라기> 특별전을 보기 위해 줄을 선 관람객들
6. 아침 일찍 미술관 개관을 기다리는 런던 사람들





우리 연극을 이끄는 극단들 ④

극단 골목길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작지만 단단한 무대

극단 '골목길'이란 극단의 이름에는 옛날, 골목을 마주하고 웅기중기 모여 살던 시절의 정서, 골목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 담겨 있다. 그들의 창단 역시 극단의 이름만큼이나, 그리고 소박하기로 유명한 그들의 무대만큼이나 소박했다. 딱히 거창한 슬로건을 내세우거나 창단에 큰 의의를 둔 것도 아니었다. 2003년 작가 겸 연출가인 박근형을 중심으로 같이 연극을 만들며 동고동락하던 배우 몇 명에서 현실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극단을 등록한 게 전부였다. '골목길'이란 정겨운 극단명도 오랫동안 고민하고 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문득 떠올라 붙인 이름이었다. 하지만 창단 이후 10년이 조금 넘는 세월동안 골목길은 대학로 연극계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며 극단 내외적으로 팔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청춘예찬>, <선착장에서>, <경숙이, 경숙아버지>, <너무 놀라지 마라> 등 내놓는 작품마다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연극계의 크고 작은 상들을 휩쓸었고 대학로 안팎으로 중형무진 활동 중인 명배우들을 배출하면서 골목길은 대학로를 대표하는 극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놀면서 정들면서 만들어낸 무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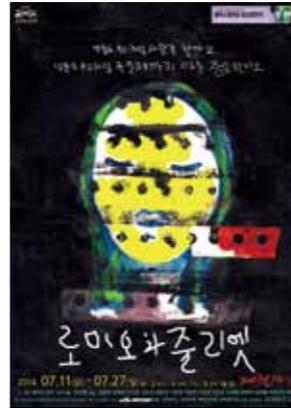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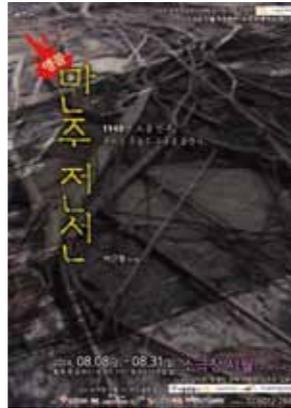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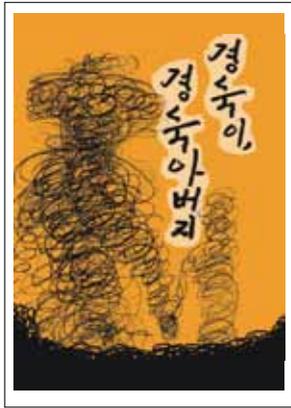
창단 이후 극단 골목길의 초반 활동은 극단을 창단하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극장은커녕 연습실을 빌릴 돈도 마련하기 힘들었지만 같이 모여 연극을 만든다는 것만으로도 마냥 즐거운 시절이었다. 무대가 없으면 트럭을 빌려 막을 올리고 조명이 없으면 형광등을 켜놓고 공연하고 퇴장로가 없으면 배우들이 알아서 바닥에 숨었다가 일어나는 등 연극을 놀이처럼 즐기면서 만들었다. 그런 세월을 함께 했기에 배우들은 가족보다 끈끈한 정으로 뭉칠 수 있었고 이는 골목길의 막강 앙상블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었다. 지금도 박근형 대표는 1년에 수차례씩 떠나는 극단 식구들의 엠티와 지방공연, 그리고 소풍 등 '놀러 다니는 것'이야말로 극단을 지속시키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한다. 화려한 공연장들 뒤편에서 조용히 자기들만의 연극을 만들어 올리면서 골목길은 우리 연극의 흐름에 새로운 물질을 틀었다. <쥐>, <달러스 초이스> 등 골목길의 초기 작품들은 연극계에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의 연극은 주류라기보다는 그들의 연극, 아웃사이드 연극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이에 연연하지 않고 그들은 남루한 소시민의 삶을 집요하게 들여다보는 소박한 연극을 꾸준히 올려왔다. 그리고 <청춘예찬>, <선착장에서>, <경숙이, 경숙아버지> 등 수작들이 이어지면서 골목길은 대학로의 주류 극단으로 부상했을 뿐 아니라 일상을 중시하는 소극장 연극의 흐름 자체를 주도했다.

1	2
3	4
5	
6	7

1, 2. <경숙이, 경숙아버지 공연사진> ©극단 골목길
3, 4.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사진> ©극단 골목길
5. <만주전선 공연사진> ©극단 골목길
6, 7. <청춘예찬 공연사진> ©극단 골목길

스타들이 제 발로 찾아오는 극단

또 한 가지 극단 골목길은 모두가 공인하는 대학로의 대표적인 배우 양성소로 꼽힌다. 그간 골목길



8	9	10	11
---	---	----	----

8. <경숙이, 경숙아 아버지> 포스터
9. <청춘예찬> 포스터
10. <만주전선> 포스터
11. <로미오와 줄리엣> 포스터

을 거쳐 성장한 배우들은 부지기수다. 박해일, 윤계문, 고수희 등은 이미 영화나 드라마의 간판스타로 이름을 날리고 있고 황영희, 김영필, 주인영, 엄효섭 등도 무대와 스크린을 드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배두나(<선데이 서울>), 방은희(<삽 아니면 도끼>), 김영민(<청춘예찬>), 조재현(<경숙이, 경숙아 아버지>), 고수(<돌아온 엄사장>)에 이르기까지 이름이 알려진 유명 배우들도 박근형 연출과 함께 무대에 서고 싶다며 골목길을 찾아 오곤 한다.

이미 연기력과 실력을 공인받은 이들 배우들로 하여금 '새로 배우는' 마음으로 극단을 찾게 만드는 골목길의 비법은 무엇일까. 답은 하나부터 열까지 배우에게 모든 걸 맡기는 박근형의 '방목형 연출'에 있다. 연습할 때도 공연할 때도 그는 배우에게 무엇을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법이 없다. 전적으로 무대를 배우에게 맡기면서 '배우가 소품도 되고 음악도 되고 조명도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는 배우가 잘하면 무대에 조명이 없어도 빛날

수 있고 소품이 없어도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연출가의 강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또한 박근형이 그렇게 배우를 믿고 맡기는 데에는 배우의 모든 것을 읽어낸 연출가의 자신감이 깔려 있다. 무대에 서기 전부터 이미 배우의 성격과 기질은 물론 호흡과 배우 자신도 모르는 버릇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박근형은 배우에게 무언가를 지시해서 역할을 완성시키기보다는 배우 스스로 역할을 찾아가길 기다릴 줄 아는 연출가다.

오늘,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

극단 골목길의 연극은 대부분 웃음이 넘쳐난다. 가장 어둡고 그늘진 곳의 삶을 이야기하면서도 무겁게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아주 경쾌하고 유머러스하게 흘러간다. 관객들이 연극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편하게 보면서 느끼게 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날카로운 '한 방'이 숨겨져 있다. 여기엔 연극이 우리의 삶을 담아내고 시대와 함께 숨 쉬어야 한다는 박근형 연출의 또렷한 시대 의식이 깔려 있다.

최근 들어 창단 10주년을 넘어서면서 골목길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 TV와 영화 등 외부 작업들로 바빠진 배우들을 대신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신인 배우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극단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고 이봉련, 박완규, 서이숙, 신덕호, 정세라 등 외부 극단의 중견 배우들이 극단 작업에 참여하면서 극단의 얼굴이 더욱 다채로워졌다.

하지만 '지금, 이곳'을 이야기하는 연극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책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이 시대의 사람이 나오는 연극, 동시대 대한민국의 현실을 담아낸 연극을 만들고자 하는 골목길의 의지는 어떤 작품, 어떤 배우와 함께 하더라도 변함없이 드러나고 있다.

시대를 담아내는 연극의 힘

가장 최근작인 극단 골목길의 <로미오와 줄리엣>에도 동시대적 문제의식을 담고자 하는 극단의 시대정신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열다섯, 열여섯이란 꽃다운 나이에 교복을 떠올리게 하는 감색 재킷과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서 서로 손을 꼭 잡은 채 죽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시신. 눈도 채 못 감은 아이들의 시신 앞에서 로렌스 신부는 "왜 어린 너희들이 죽어야 하느냐"고 한탄했고 뒤늦게 아이들의 죽음을 알게 된 몬태규, 캐플릿家 사람들은 그들의 시신을 그대로 세워둔 채, 다시금 서로를 향한 분노와 복수의 주먹질을 시작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만남과 사랑,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원작의 스토리와 장면 구성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극단 골목길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들의 애뜻하고 안타까운 사랑을 절절하게 그려내기보다는 이들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비극의 원인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것은 몬태규, 캐플릿家의 끝없는 반목과 다르지 않은 오늘날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분법적 증오와 복수심이다.

이처럼 무대 위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도 시대도 배경도 전혀 바꾸지 않았지만 무대 위 슬프고 참혹한 비극의 현장은 중세의 베로나가 아니라 2014년, 바로 이곳을 느끼게 해준다. 직접적으로 상황 설명을 집어넣거나 배경을 현대 혹은 서울로 바꾸지 않아도 시대적 맥락을 담은 대사 몇 줄과 소소한 설정 몇 개로 이 오래된 사랑 이야기를 지금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비극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시대를 읽는 박근형의 힘이고 고전이든 창작극이든 자신들의 연극 안에 시대정신을 담아내고자 하는 극단 골목길의 힘이다. 

글 김주연

고려대학교 노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러시아 연극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월간 『객석』에서 연극 담당 기자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연극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연극 칼럼니스트와 드라마터그로 활동하고 있다.

극단 골목길

극단 연혁

2003년 창단 : <삼총사> <딜러스 초이스> <쥐>
주요 작품 <청춘예찬> <선착장에서> <만주전선> <백무동에서> <경숙이, 경숙 아버지> <너무 놀라지 마라> <로미오와 줄리엣> 외

극단 수상경력

<청춘예찬> 2000 동아연극상 작품상, 희곡상, 백상예술대상 희곡상 외
<경숙이, 경숙 아버지> 2006 동아연극상 작품상, 희곡상, 올해의예술상 외
<너무 놀라지 마라> 2009 대한민국연극대상 작품상, 동아연극상 작품상, 연출상 외



오페라 속의 춤

오페라와 발레는 먼 것 같지만 제법 가까운 장르다. 공통점이 많다는 얘기가. 우선 주된 공연장으로 오페라하우스라는 공간을 공유한다. 따라서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라면 오페라단과 더불어 발레단도 산하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스토리 있는 발레의 경우에는 종합예술로서 오페라와 견줄 만하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오페라가 발레보다 범위도 넓고 인문학적 깊이도 있으며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인기를 누린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춤, 좁은 의미로 발레는 오페라의 하위 장르로 인식되기도 했으며 대등한 위상보다는 오페라 속에 종속된 위치에서 자주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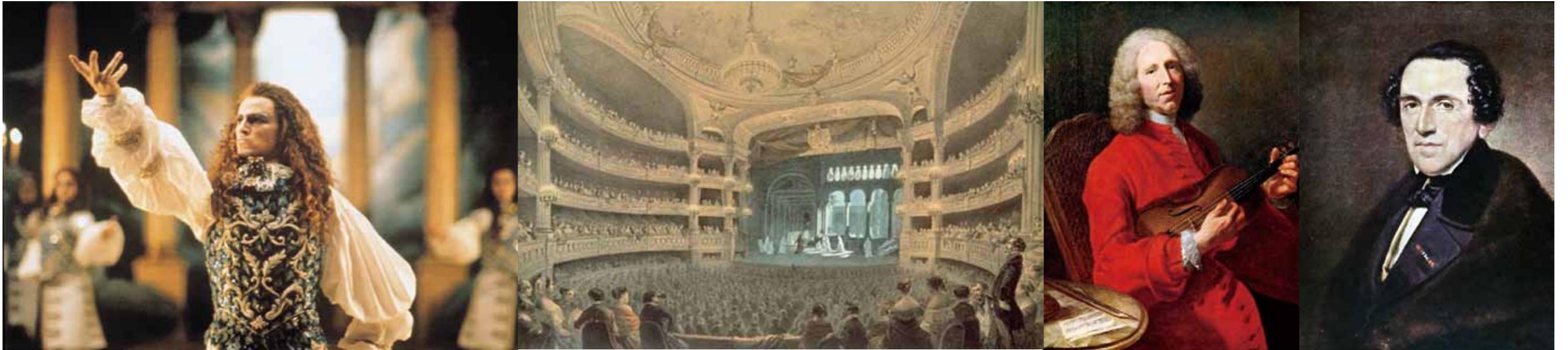
오페라 속에 발레가 삽입되는 이유

답았다고 했지만 오페라와 발레가 다른 점도 많다. 발레는 님버벌(nonverbal), 즉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인간의 육체적 아름다움과 스포츠를 방불케 하는 힘을 이용한다. 육체를 드러내므로 본질적으로 에로스를 강조한다는 점은 그리스 비극의 부활이라는 목표로 탄생하여 오랫동안 본격적인 에로스와의 거리를 두어온 오페라와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오페라 속에서 발레의 기능은 첫째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1871) 2막에서 유명한 개선 행진이 벌어진 다음 곧바로 흑인 노예들의 눈부신 춤이 이어진다. 이 발레가 없었더라면 개선 장면이 이처럼 유명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도 있다. 고전 발레의 경우는 우아한 의상과 동작이 기본이므로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장면보다 고결하게 보이기도 한다. 차이콥스키의 <스페이드 퀴>(1890) 2막에서 극중극으로 펼쳐지는 '다프니스와 클로에'가 그런 예이다. 분위기 전환도 된다. 마스네의 <타이스>(1894)에 나오는 명상곡은 원래 간주곡 성격이지만 이 곡에 안무를 입힘으로써 타락한 주인공이 잠든 사이에 종교적으로 교화되는 분위기를 배가시킬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에로스적 요소의 삽입이다. 아름다운 육체를 지닌 무용수의 춤에 관객의 눈은 황홀해지고 프로이트가 '삶의 동력'이라고 설파한 에로스의 향연이 펼쳐지기도 한다. 생상스의 오페라 <삼손과 달릴라>(1877) 3막에 나오는 '바카날'은 질퍽한 주연(酒宴)을 묘사한 것인데 반쯤

-
1. 생상스의 삼손과 달릴라 중 바카날레
 2. 아이다의 개선행진곡 중 발레장면





벌거벗은 남녀 무용수들이 이교도의 타락한 향연으로 이끈다. 뚱뚱한 오페라 가수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몸짱-얼짱 무용수들이 해결하는 것이다. 문제는 발레 장면이 “드라마로서 오페라”의 성격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춤은 언어가 없으므로 서술적인 기능이 약하고 눈을 호사시키는 반면 오페라는 대본이라는 문학적 수단으로 극을 이끌어간다. 두 방식은 너무도 이질적인 것이다. 따라서 춤의 삽입은 연결되는 극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대적 연출에서는 연극적인 면을 강화하여 드라마의 분위기와 조화시킨 안무로 이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 양상

오페라와 발레의 만남은 17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당시 궁정을 위한 무대 공연으로 ‘오페라 발레’란 것이 탄생했는데, 이는 춤과 노래가 대등하게 파트너를 이루는 화려하고 스펙터클한 작품으로서 서정 비극 발레 형식에 디베르티스망(볼거리 중심이 춤)이 들어오고 오페라 서창부가 발레에 결합된 것이었다. 내용은 대체로 빈약한 편이어서 관객의 관심은 발레에 더 집중되었다. 당시 최고의 공로자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프랑스에 귀화하여 루이 14세의 총애를 받은 장-바티스트 륄리(1632~1687)였다. 그는 1672년 무용과 음악을 관장하는 왕실 아카데미 원장에 취임한 이후 춤과 노래가 어울리는 새로운 극장공연 형식의 서정적 드라마를 제작하였으며 17편의 오페라 발레를 작곡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오페라 발레라기보다는 서정 비극에 가까운 오페라였으며 륄리의 음악, 피에르 보샤의 안무, 장 베랭의 무대디자이너가 어우러진 일종의 공동제작 시스템으로 진행되었다. 오페라 발

레의 전통은 바로크 시대의 프랑스 오페라에 반드시 발레가 삽입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어져 장-필리프 라모(1683~1764)의 <우아한 인도>(1735) 등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 19세기에도 발레가 오페라에 삽입되는 전통은 프랑스에서 유행했다. 낭만주의 시대인 19세기 전반에 프랑스의 대표극장인 파리 오페라에서는 장대한 5막 구성의 그랑도페라가 성행했는데 5막으로 구성된 그랑도페라에서는 반드시 발레 장면을 삽입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파리의 최상류층이 출입하는 극장이라 18세기 궁정 오페라의 분위기가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랑도페라의 대표작곡가 자코모 마이어베어의 <악마 로베르>(1831)에는 남자와 통정한 죄를 지은 수녀들의 무덤에서 귀신들이 살아나와 춤추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은 10년 후 초연된 프랑스 낭만 발레의 걸작 <지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그랑도페라와 달리 서민들이 관람하는 대중적 양식인 오페라 코미크(레지타티보 대신 대사를 사용하는 프랑스 오

페라)에서는 발레를 삽입할 필요가 없었다. 발레가 귀족적인 취미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의 경우에는 발레를 삽입하는 관행이 없었다. 그러나 파리에서 공연될 목적으로 그랑도페라의 분위기를 담은 로시니의 <기욤 텔>(1829), 베르디의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1855), <맥베스> 개정판(1865)의 경우에 발레 장면이 들어간 것은 어색할 것이 없다. 이 오페라들은 불어 대본으로 작곡되었다. 전술한 <아이다>의 경우는 작곡을 의뢰한 이집트의 카이로 오페라하우스 측에서 장대한 축전용 오페라를 위촉한 것이기에 발레가 삽입된 케이스다. 폰키엘리의 <라 조콘다>(1876)에는 ‘시간의 춤’이라는 유명한 발레곡이 나오는데 극의 진행과는 무관하게 무도회 장면의 극중 발레로 펼쳐진다. 워낙 유명한 선율이지만 극의 흐름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므로 생략되는 경우도 많다. 독일 오페라에서도 발레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무뚝뚝한 독일 사람들은 ‘춤 추는 전통’에 약한 편이므로 발레에 별 취미가 없었던 것이다. 바그

3	4	5	6
---	---	---	---

3. 궁정오페라와 발레의 수호자 루이14세를 다룬 영화 왕의 춤
4. 마이어베르의 악마로베르 중 발레장면 초연 스케치
5. 바로크 오페라발레의 대표작 라모
6. 그랑도페라의 대표작 마이어베르



너의 <탄호이저> 1막 개시부의 베누스의 산 장면이 발레가 있지만 파리 공연을 위한 개정판(1861)에만 프랑스 관객을 위해 삽입된 것일 뿐 다른 경우에는 생략되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경쾌한 빈 오페레타의 경우 정통 발레는 아니어도 왈츠나 동유럽 댄스 장면이 삽입된 경우가 많다.

20세기 이후에 작곡된 오페라에서는 발레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오페라에서 문학적 비중이 점차 증대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중간에 춤이 삽입되는 것은 극의 맥을 끊는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으므로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1970년대 이후에 이르러 과거의 오페라를 해석할 때 연출의 한 수단으로 또는 오페라-발레로 새로운 작품을 재창조하는 방식이 등장해 중요한 트렌드를 형성하게 되었다.

안무가의 오페라 재창조 혹은 연출

춤 전면에 내세운 오페라의 새로운 창조 대상은

대체로 바로크 오페라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기본적으로 무곡 리듬을 이용한 경우가 많고 특히 프랑스 궁정 오페라에서는 춤이 오페라의 일부로 녹아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피나 바우쉬의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1975)는 글루크의 개혁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케>를 이용한 것으로 무대 위에 가수와 무용수가 동시에 오른다. 예컨대 오르페오 역의 가수는 노래를 부르고 무용수는 연기에 해당하는 춤을 추는 것이다. 새로운 작품임을 강조하기 위해 원래 가사인 이탈리아어 대신 피나 바우쉬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부른다. 바우쉬는 탄츠테아터라고 하여 춤을 중심으로 하되 모든 공연예술을 아우르는 ‘탈경계’를 부르짖은 안무가였고 그 이념이 반영된 것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89년 마크 모리스가 재창조한 헨리 퍼셀의 바로크 영어 오페라 <디도와 에네아스>(1989)의 경우 춤의 스타일은 다르지만 피나 바우쉬의 영향을 받았다. 여기서는 무대 위에 무용수들만 올라간다. 가수들은 무대 밑에서 노래를 부른다. 바우쉬

에 비하면 음악과 춤이 분리된 편이지만 관객의 입장에서는 거의 완벽한 춤과 오페라의 결합이다. 모리스는 남녀 간의 성역할을 두지 않는 편이어서 여주인공 디도 역에 남성인 자신이 직접 출연하는가 하면 여자 무용수가 남자 무용수를 살짝 들어올리기도 한다.

완전히 새로운 작품은 아니지만 안무가가 오페라 연출을 맡으면 춤의 역할이 크게 강조된다. 미국의 실험적인 여류안무가 트리샤 브라운은 오페라 역사에서 최초의 고전으로 꼽히는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를 연출하면서 가수들에게도 세심한 춤 동작을 요구했다. 전문무용수가 아니므로 어려운 동작은 어렵지만 춤이 바탕이 된 새로운 감각은 충분히 넘쳐난다. 조금 복잡한 춤은 합창단과 더불어 무대 위에 오른 그녀의 무용수들이 해결한다. 로버트 윌슨은 연극 연출가이지만 일본 전통극의 영향으로 일종의 느린 춤 동작을 자신의 오페라 연출에 반복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방식으로 연출된 오페라는 몬테베르디부터 푸치니까지 광범위한 윌슨표 오페

7	8	9
---	---	---

7. 폰키엘리의 라 조콘다 중 시간의 춤
8. 피나 바우쉬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케
9. 마크 모리스의 디도와 에네아스

라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 안무가 웨인 맥그리거는 헨델의 <아키스와 갈라테아>를 그리스 신화에 어울리는 환상적인 무용 오페라로 만들어냈다. 피나 바우쉬의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처럼 한 무대 위에서 무용수와 가수가 동시에 등장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무용수들은 전신 살색 타이츠를 착용하여 마치 벌거벗은 듯 에로틱하다. 

글 유형 중

연세대학교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1995년부터 음악과 무용에 관한 칼럼을 썼고 현재는 무지크바움 대표로 있으면서 강의를 하고 글을 쓴다.



>> 아 음악이여!

그대 속에 우리 마음과 영혼을 담아
우리의 귀를 통해 세상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일깨워 주소서

Kahlil Gibran 1883~1931

수용음악치료법

- 1부. 조절음악치료(RegulartiveMusiktherapie) 소개
- 2부. 조절음악치료 1~2단계의 이론강해
- 3부. 조절음악치료 3~4단계의 이론강해

4부. 조절음악치료 5~6단계의 이론강해

5부(최종). 실제를 위한 방법안내

단계별 치료과정소개

‘조절음악치료법의 입문’의 총 6단계 중 마지막 과정 5~6단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치료법은 대부분 집단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집단치료진행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며, 이후 최종 호에 개별을 위한 실제 적용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5단계 -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각’에 대한 정확한 관찰 촉구하기

역설적 의도의 습득 《알아차림에 방해되는 지각들을 정확히 관찰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또한 무엇이, 무슨 이유로 지각을 방해하는지 원인을 규명해 보십시오.》

5단계 과정에서는 직전과정인 4단계의 ‘받아들이지 않는 지각¹⁾’에 직면하면서 이루어지는 심리행동 전략단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방법전략을 알려주어 작전을 수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자신들이 스스로에게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유는 참여자들 자신 스스로가 전략 안에서 좌지우지 되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형적인 5단계의 지령은 다음과 같다; “방해되는 지각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고 기술해 보세요. 이런 지각들 안에서 당신이 받는 방해가 무엇이며 또한 무엇 때문인지를 규명해 보십시오.”

1)지각의 ‘안 받아들임’이란 지각하는 과정에서 지각된 것과 자신 내면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하나의 방어적인 감정반응이며 또한 순간 변화하고자 하는 충동이나 또는 다른 것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갖는 마음의 한 흔적일 수 있다.(하늘다리, 07+08호 p.47)

대부분의 심리적 문제는 내면의 욕구와 외부 요구의 상충에 의한 갈등, 포기, 외면, 합리화 등으로 부조화를 통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조절 음악 치료법은 체험 과정에서는 이런 내·외면이 상충하는 과정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인 문제원인들을 통찰하고 그것을 재인함으로써 회복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5단계에서는 ‘안 받아들이는 지각’을 통찰하고 재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2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1전략으로는 심리적 문제점, 즉 내면의 장애적체험이나 증상영역을 보다 자세하게 집중하면서 ‘안 받아들여지는 지각’들을 보다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 전략은 Flankl(1956)의 ‘역설적 중재’와 Watzlawick(1974)의 ‘증상처방’ 이론의 핵심과 유사하다. 2전략은 1전략과 반대로 문제영역에 집중하거나 직면하는 것이 아닌 지각의 영역을 보다 더 넓게 살펴보는 것으로 “이것 말고 무엇이 더 있을까?”로 다른 영역으로 관심영역을 넓혀가면서 문제영역들을 다시금 살펴보게 하는 것이다. 전략 2는 지각영역을 능동적이고 의식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받아들인 지각에 기초하여 장애받는 지각의 요인들을 더 찾도록 실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문제영역으로의 직면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내면의 태도가 참여자들에게 다시금 전략 1로 스스로 심리적 행동을 변화하게 하는 가능성을 제공하게 된다. 의미적으로 볼 때 회피로 볼 수 있는 전략 2는 곧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각들을 다시 재정립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략이 되는 것으로 몰두된 정신 에너지를 풀어 주어 돌출되는 충동성에 기여하여 지각할 수 있도록

록 돕는 구급적인 해결전략으로 볼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심리행동가능성을 Ch. Schwabe는 전략 1, 2로 구분하여 나타냈다(Schwabe 1979).

5단계의 지령은 먼저 전략1의 의미를 갖고 장애문제에 접근하고 집중하도록 인도한다. 참여자가 성공적으로 각 단계를 거쳐 의식적으로 지금의 단계까지 도달한다면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적 문제점들에 대해 당연하듯 전략 1을 적용하게 된다. 그가 이 과정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령, 즉 심리적 장애나 문제를 가까이 접근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지면 역설적인 치료적 중재를 이루는 최상의 조건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정신장애나 문제점을 진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치료적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동시에 증상과 내면 갈등의 문제점을 감정적으로 생산하던 정신 내면적 태도변화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게 한다.

위의 전략들을 참여자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알맞은 시간은 먼저 집단대화에서 참여자들이 서로 자기 방식대로의 다양한 예제들을 토론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때로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명료하게 나타날 때이다. 이때는 참여자들이 심리적으로 방해 받는 요소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능동적인 지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지각된 것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져 가는 것에 여유를 갖고 ‘지금 그리고 여기에’ 현존하는 내면의 현상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려는 의지를 갖게 될 때이다. 이것은 참여자가 지금까지 인정할 수 없었던 것들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과정으로서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와 장애의 지각적 체험을 비로소 알게 되는 때로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지각의 눈을 뜨게 되며 또 다른 의미를 발

견하게 된다. 자신의 내면의 장애와 갈등에 대해 능동적으로 살필 수 있는 각 단계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내면의 깊은 이완상태를 체험하게 되고 자아고유성(Persoenlichkeitseigenschaften)과 갈등 사이의 성숙한 통찰이 일어나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행동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치료사는 역설적인 행위지령을 잘 인도해야 하며 참여자들이 자신의 문제와 증상에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잘못된 긴장상태를 인식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참여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체험과정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지각을 통해 현재의 장애와 갈등을 인식하고 그것을 지금 순간 인정할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참여자 자신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서든 모든 지각들을 강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처음단계에서 경험한 아주 힘들고 거북스러운 지각의 회피나 저항현상들이 이제 와서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문제점을 살피고 수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과정적 흐름의 체험이다.

훈련과정의 실패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발생할 수 있다. 종종 참여자의 내면에 감추어진 욕망을 과정의 흐름에서 벗어나 너무 급하게 표출하여 직접적인 변화를 소망할 때이다. 또는 체험중심이 아닌 형식에 치우쳐서 전략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각에 대한 인내와 회피가 나타나는 순간에 억지로 문제점을 받아들이는 인위적인 수용행위가 나타나 내면의 갈등이 심화되어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으며, 이번 단계에서 보다 섬세한 작업을 통해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해결할 수 있다.

6단계 - 긴장의 조절과 불안의 허용을 위한 의식적인 행위 전략의 활용 촉구하기

경험한 일에 관한 상담과 치료의 종료 《긴장이완, 자립성, 자신과의 씨름, 자아의 발견과 같은 허상의 목표들은 내보이지 않을뿐더러 점차적으로 제거된다.》

1~5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과정적 치료 작업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 이번 단계에서는 참여자들 스스로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적용가능성에 대한 집단성원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 치료사는 집단 성원들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자립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 과정의 도움을 토대로 참여자들은 자신의 문제점과 갈등, 내면정신 및 사고 행위양식 등 전체적인 조망을 얻게 되고 자기 자신과의 자발적인 논쟁이 일어나면서 변화의 기틀을 제공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성원들은 활력을 얻게 되며 집단대화를 통해 활성화되면서 결국 자신의 문제점들이 주제화될 수 있는데, 이때 치료사는 성원들이 자립과 책임을 갖도록 격려해야 한다. 여기서 종종 아주 예민한 주제들이 화두에 오를 수도 있는데, 삶과 죽음(자연사(Sterben), 사고사(Tod)), 삶의 의미, 노화문제, 부부문제, 자기극복, 삶의 질, 관계문제 등 이런 문제들은 종종 객관적인 결정을 제시해주어야

하며, 성원들 간의 마찰이 일어날 경우 섬세한 배려와 관심을 통해 각 성원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조절음악치료의 핵심 지령의 초안

- 1단계 : 전체적으로 각 지각의 영역에서 넓게 그리고 많이 지각하고 표현하도록 촉구한다.
- 2단계 : 보다 정확하고 세분화하여 지각하고 표현하도록 촉구한다.
- 3단계 : 지각에 대한 감정반응을 살펴보고 표현하도록 촉구한다.
- 4단계 : ‘받아들인 지각’과 ‘안 받아들인 지각’에 대한 구분과 표현을 촉구한다.
- 5단계 :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각’에 대한 정확한 관찰을 촉구한다.
- 6단계 : 긴장의 조절과 불안의 허용을 위한 의식적인 행위 전략의 활용을 촉구한다. 

글 하준성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음악치료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Dipl. MT)를 받았다. 독일 공인음악치료사로 현재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순천향대 건강과학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음악치료임상교수와 ‘HJS음악치료발달연구소’ 소장, ‘음악힐링아이’ 대표를 맡고 있다.

조절음악치료법 단계별 진행초안

조절음악치료법은 크게 6단계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단계는 참여한 집단성원들의 목적과 능력, 그리고 성격에 따라 진행시간이 다르게 책정되어 진행된다. 각 단계는 반드시 조절음악치료사에 의해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각 단계별로 진행되는 주문과 중심초안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에 온전한 접촉을 위한 방어물 및 저항 이해하기(부정적 요소를 인정하기)
방법의 소개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 또는 기분을 내버리지 말고, 신체와 음악을 지각하도록 몸을 내맡겨 보십시오.)
2. 환경에 온전한 접촉에 방해되는 내면의 문제를 세밀하게 찾아보기(인정하는 요소를 세밀하게 살펴보기)
지각의 세분화 (지각된 것과 관련하여 당신의 생각에 무엇인가 더 떠오르는 것이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조절음악치료법 지침

- ♫음악의 설정 : 개인의 감정이 순수하게 이입될 수 있고 주관적인 판단을 유도할 수 있기에 가장 좋은 장르는 클래식 음악을 사용한다. 단 성악이 섞여있거나 특별한 기억이나 회상과 관련되어 있는 음악은 제외된다.
- ♫과정실행에 반드시 균형을 잡은 편안한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누워서 실행하는 것은 금물이며 가능한 의자에 앉아 몸의 중심을 약간 뒤로 하는 것이 좋다. 과정 중에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편안하게 변경할 수 있다.

3. 내면 감정의 반응을 주시해 보고 표현하기
동반하는 감정(지각함을 통해 당신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4. '받아들인 지각'과 '안 받아들인 지각'에 대한 구분 및 표현하기
허용할 수 있는 지각과 허용할 수 없는 지각의 구분 (하나의 지각에 관한 자신의 느낌에 주목하면서 그 지각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통찰해 보십시오.)
5.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각'에 대한 정확한 관찰 촉구하기
역설적의도의 습득 (방해가 되는 지각들을 정확히 관찰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또 무엇이,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지각함에 방해가 되는지 원인을 규명해 보도록 해 보십시오.)
6. 긴장의 조절과 불안의 허용을 위한 의식적인 행위 전략의 활용 촉구하기
경험한 일에 관한 상담과 치료의 종료 (긴장이완, 자립성, 자신과의 씨름, 자아의 발견과 같은 허상의 목표들은 내 보이지 않을뿐더러 점차적으로 제거된다.)

- ♫눈을 감음으로써 큰 불편함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눈은 되도록 감도록 한다.
- ♫마음의 태도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한다. 마음의 방어(도망, 회피, 갈등, 변화하고픈 마음, 참고 견딜)를 수용하며 3개 대상범위(신체, 생각과 느낌, 음악)에 어떤 것들이 지각되는지 자신을 내맡기는 태도를 필요로 한다.



해외문화 기행



엘 그레코(El Greco)의 마을, 톨레도(Toledo)에 가다

톨레도(Toledo)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남서쪽으로 70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마드리드의 플라자 엘립티카(Plaza Elíptica)역에서 버스로 약 한 시간이면 닿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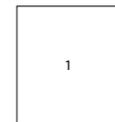
톨레도는 펠리페 2세가 1560년 마드리드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스페인의 실질적인 수도였다. 15세기 말 가톨릭 세력이 진입하여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기까지 오랜 기간 이슬람교도들이 거주한 탓에 지금도 이슬람 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시의 고풍스러움을 자아내는 것은 아직도 작은 골목 하나하나에 남아있는 중세의 흔적이다.

화가 엘 그레코도 이 중세의 흔적을 간직한 작은 도시의 아름다움에 반해 이곳에서 말년을 보냈다고 한다.

스페인의 옛 수도, 톨레도

마드리드에서 버스로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한 톨레도를 여행하는 데는 만 하루면 충분하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 지하철을 타고 마드리드 남쪽에 위치한 플라자 엘립티카 역에 도착해 왕복표를 끊었다. 버스는 30분 단위로 있지만 성수기에는 톨레도를 오가는 여행객이 많은 탓에 기다리는 시간이 짧지 않다. 대도시를 벗어나니 금세 푸른 녹지가 나타나고, 낮은 구름이 청명한 하늘을 수놓는다.

한 시간을 달려 톨레도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타호강에 둘러싸인 중세의 성곽이다. 톨레도의 구시가지는 견고한 성벽에 둘러싸인 언덕위에 위치해 있다. 도시라기보



1. 엘 그레코의 집 전경
2. 톨레도 대성당의 입구



다는 마을에 가까운 작은 규모이기에 둘러보는 데는 반나절이면 충분하다. 시내 관광의 출발은 구시가의 중심인 소코도베르 광장에서 이루어진다. 버스터미널에서 이 광장까지는 시내버스를 타도 좋고, 중세 성벽을 가까이서 감상하고 싶다면 도보로 이동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도보를 선택한다면 알칸타라 다리를 건널 수 있다. 톨레도는 삼면을 타호강이 감싸 흐르고 있는데, 타호강에 놓인 다리 중 가장 오래된 것이 알칸타라 다리이다. 알칸타라는 아랍어로 '교량'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명칭은 아랍어로 되어 있지만 최초로 축조된 시기는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월이 흐르며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훼손된 것을 15세기에 복구한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따라서 알칸타라 다리는 톨레도의 역사를 증명한다. 본래 톨레도는 스페인의 옛 수도로서, 스페인 가톨릭과 지식의 중심지였다. 기원전 2세기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중세에는 고트족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예로부터 상공업이 발달했으며, 무기산지로도 유명하다. 이베리아 반도의 중앙부를 차지했던 카스티야 왕조 시대에는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로 전성기를 누렸다. 1560년 펠리페 2세가 마드리드로 수도를 옮기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했지만, 여전히 이슬람과 기독교가 혼재된 독특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채 많은 이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톨레도에서 만난 엘 그레코의 성화들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 엘 그레코(El Greco, 1541~1614) 역시 톨레도에 매료된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본래 스페인이 아닌 그리스 출신이었다. '엘 그레코'라는 이름 역시 그리스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그레코'에 스페인어 정관사인 '엘'이 조합된 말이다. 그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지배하에 있던 크레타 섬에서 태어났다. 20대 중반 이탈리아로 건너가 로마에서 10년간 머문 후, 35세경 스페인 톨레도에 도착하였다. 이후 펠리페 2세의 궁정화가로 마드리드를 오갔으나 인생의 대부분인 40년을 톨레도에서 보냈다.

그가 톨레도에서 그린 첫 번째 그림이 톨레도 대성당에 걸려 있는 <엘 에스폴리오(El Espolio)>이다. 톨레도의 상징인 대성당은 내부 종축의 길이만 110미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성당 내부에는 엘 그레코를 비롯하여 고야, 벨라스케스, 리베라와 같은 스페인 화가들의 작품이 즐비하다. 엘 그레코의 작품 <엘 에스폴리오>는 대성당의 성물실 정면을 장식하고 있다.

그림의 제목인 '엘 에스폴리오'는 '그리스도의 옷을 벗김'이라는 의미이다. 1579년 완성된 그림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병사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서유럽의 기독교 미술에서는 보기 드문 도상으로, 복음서에도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장면이기 때문이다. 화면을 빈틈없이 채운 인물들, 불확실한 회색빛의 배경, 길게 늘어진 인체는 엘 그레코가 추구한 매너리즘 화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슬픔에 어린 눈으로 하늘을 응시하는 그리스도의 표정 역시 이후 엘 그레코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한다. 대성당을 나와 좁은 골목길 몇 개를 지나면 그 유명한 산토 도메 성당이 나타난다. 엘 그레코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에 걸린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을 직접 보기 위해 톨레도를 찾는다. 그림은 14세기에 살았던 오르가스 백작인 곤살로 루이스의 장례식 장면을 그린 것이다. 그는 생전에 선행과 기부를 많이 하여 장례식에 성 스테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환영이 나타나 매장을 도왔다고 알려져 있다.

상하로 나누어진 그림은 아래에 장례식과 입관 장면을, 위에는 오르가스 백작의 영혼이 천상으로 올라가 그리스도의 심



3. 톨레도 구시가로 연결된 알칸타라 다리
4. 톨레도 대성당의 성물실
5. <엘 에스폴리오>, 엘 그레코, 1579년, 톨레도 대성당 성물실 소장



판을 받는 장면을 담고 있다. 화면 하단의 왼편에서 시체의 매장을 돕는 이가 성 스테판이고 오른편에 주교관을 쓴 이가 성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성 스테판의 화려한 황금빛 의상에는 이교도들의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는 성 스테판의 순교 장면이 수놓아져 있다. 왼쪽 전경에서 관람자를 그림 속 사건으로 안내하는 소년은 엘 그레코의 아들이다. 오르가스 백작을 가리키는 소년의 손은 시선을 중앙으로 이끌며 주인공이 선행의 결과로 이런 영광에 이르렀음을 강조하고 있다.

엘 그레코, 중세의 도시에 잠들다.

스페인의 궁정화가로 명성을 누렸지만 왕과의 갈등에 시달렸던 엘 그레코는 톨레도로 돌아와 비로소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 타호강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언덕들과 잘 보존된 중세풍의 고즈넉한 건물들이 그에게 평안함을 주었을 것이다. 톨레도에 돌아온 그는 1585년부터 비에나 후작의 저택에 방을 빌려 거주하면서 그림을 그리다가 1614년 숨을 거두었다.

현재 톨레도에는 ‘엘 그레코의 집(Casa del Greco)’이라는 기념관이 남아있는데, 이는 엘 그레코가 살았던 실제의 집은 아니다. 20세기 초 베가 인클란 후작이 한 귀족의 저택을 개축해 기념관으로 개관하였다. 이곳에는 엘 그레코가 종교화 다음으로 많이 그린 초상화와 풍경화가 다수 전시되어 있으며 아틀리에와 부엌, 서재, 정원 등이 16세기 당시의 모습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이곳에 남아있는 작품 중 1610년경 그린 <톨레도의 전경과 계획>은 대성당과 이슬람 궁전인 알카사르 등 도시의 주요 시설물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당대 톨레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엘 그레코의 집’을 나서자 타오강 너머 낮은 언덕 위로 먹구름이 드리운다. 아, 어디선가 본 듯한 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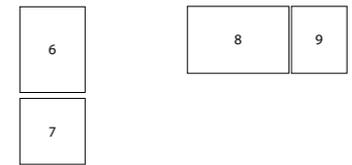
경이다. 익숙한 풍경을 앞에 두고 기억을 더듬자 엘 그레코가 그린 또 다른 풍경화가 떠오른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아래 타오강이 흐르고 저 멀리 언덕 위로 대성당이 보이던 <톨레도 풍경>. 1599년경 완성한 이 그림에서 엘 그레코는 전통적인 풍경화에서 완전히 벗어나 작가의 주관적 인상과 기분을 담은 독특한 풍경화를 보여주었다. 이는 19세기 낭만주의자들이 그린 풍경화와 유사해 보이는데 검은 구름 사이로 천둥과 번개가 치는 하늘이 자아내는 병적인 불안감과 신비로움은 후대의 작가들을 압도하는 엘 그레코만의 독보적인 표현력을 보여준다.

먹구름 낀 하늘을 등지고 서둘러 처음 출발했던 소코도베르 광장으로 향한다. 흔히들 ‘톨레도에서는 누구나 길을 잃는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톨레도의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 때문이다. 톨레도에는 약 이천 개의 골목이 그물처럼 얽혀있어 지도를 가지고도 곧잘 길을 헤매게 된다. 중세에 조성된 돌길을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는 탓이다. 골목 곳곳에는 톨레도 사람들의 소박한 삶이 살아있는 작은 상점들이 즐비하다. 이곳에서 잠시 길을 잃고 주변의 상점을 구경하며 아기자기한 즐거움에 취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갠다. 중세의 고즈넉함을 간직한 톨레도는 화려하고 거대한 대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편안함을 지니고 있다. 도시보다는 마을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엘 그레코의 도시’, 톨레도이다. 

글 강은 주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학예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이화여대와 한양대, 계원예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6.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 엘 그레코, 1586년경, 산토 도메 성당 소장
7. 엘 그레코의 집 내부, 16세기 엘 그레코의 일상적 공간을 재현
8. <톨레도의 전경과 계획>, 엘 그레코, 1610년경, 엘 그레코의 집 소장
9. <톨레도 풍경>, 엘 그레코, 1599년경,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연극
로풍찬 유랑극장

2014.10.16(목)-19(일)

목,금 8시 / 토 3시,7시 / 일 2시,6시 (100분 소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관람료 25,000원 (만14세 이상 관람가)

조기에매 25%할인 (8.18까지), 10인 이상 단체 30%할인

콜센터 080-481-4000 인터파크 1544-1555 단체문의 031-481-4022

ASAC

NEWS

64 . . . 2014 단원미술제

66 . . . 청소년극단 '고등어'



‘2014 제16회 단원미술제’

전국 최대 규모의 미술제로 자리매김해온 ‘2014단원미술제’가 10월 17일(금)부터 11월 8일(토)까지 성포동 단원미술관 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지난 1999년 시작,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단원미술제는 단원의 예술혼을 기리고 단원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미술행사로써 그동안 미술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안산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을 받아왔다.

‘2014단원미술제’는 그동안 축적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변화의 시도로, 단원의 도시 안산을 더욱 더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게 될 것이다. 올해 단원미술제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난 6월 선정된 서예·문인화부문 수상작 전시를 10월 7일(화)~12(일), 9월에 선정된 미술부문 수상작 전시는 10월 24일(금)~11월 8일(토)에 각각 진행된다.



또 전시 이외에도 단원미술제 기간 중 3일 동안에는 부대행사로 가족들과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단원 김홍도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낸 시민 참여형 단원미술체험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단원 김홍도라는 인물을 작품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체험행사로서 ‘스승 강세황을 만나다’, ‘단원김홍도 세상을 그리다’, ‘정조와 김홍도’, ‘퍼포먼스(풍속화가 살아있다, 옛장수)’의 4가지 주제 아래 화원교실, 자화상그리기 체험, 풍속화속 체험 등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교육적 효과까지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된다.

여기에 그동안 안산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안산지역작가들을 발굴해 지원·육성하고자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미술인선정작가전을 개최할 방침이다.

지역미술인선정작가전은 안산시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미술인을 선정, 안산의 지역적 특색을 알리며 개인전시의 기회를 제공해 안산미술인들의 창작세계를 펼치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이웃 미술인들의 작품을 만나는 친근한 자리로 마련하고자 한다.



2014 단원미술제 행사일정

- 서예·문인화부문 수상작 및 추천·초대작가전시
2014. 10. 7(화)~ 10. 12(일)/단원미술관
- 미술부문 수상작 전시
2014. 10. 24(금)~ 11. 8(토)/단원미술관
- ‘풍속화가 살아 있다’ 체험전
2014. 10. 24(금)~ 10. 26(일)/단원미술관
- 지역미술인선정작가전 : 2014. 10. 24(금)~ 11. 8(토)/단원미술관
- 특별전 : 2014. 10. 24(금)~ 11. 8(토)/단원미술관
- 문의사항 031-481-0503 





안산문화재단 청소년극단 〈고등어〉

제11회 행복한세상

전국 청소년 연극제 금상에 이어

오키나와국제아동청소년연극제까지

안산문화재단 청소년극단 〈고등어〉가 2014년에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충남 아산에서 열린 제11회 행복한세상 전국청소년 연극제 단체상 금상 수상과 더불어 개인상 금상, 동상, 지도교사상을 수상한 〈고등어〉는 8월에 열린 오키나와국제아동청소년연극제에 초청되어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오키나와국제아동청소년연극제는 지난 2013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참가하여 일본 관객들에게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적 능력을 선보이고 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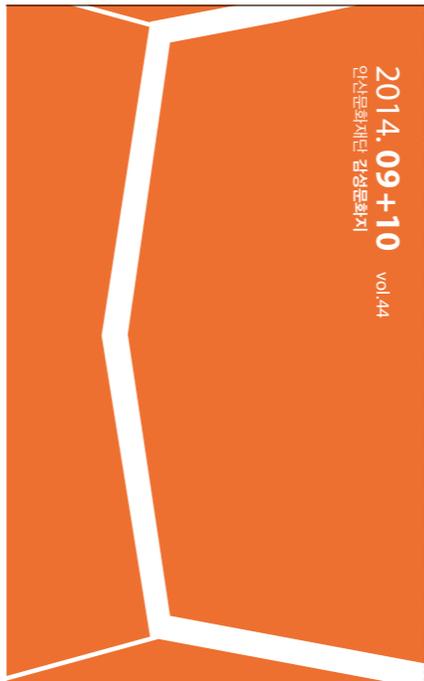


지난해 마임극 <소나기>(원작 황순원)를 선보여 한국 문학의 우수성을 알렸으며 2014년에는 세계적인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한 마임극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선보였다. 2회 공연 모두 객석은 매진이었으며, 어린아이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관객과 만났다. 오키나와국제아동청소년연극제의 관계자는 “한국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향한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이와같은 문화적 교류가 지속되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청소년극단 <고등어>는 안산 관내 강서고, 경안고, 부곡고, 안산디자인문화고, 원곡고의 학생들로 이뤄졌으며 2013년 처음 결성돼 연간 2회이상의 창작작품을 제작하는 프로젝트 극단이다. 2014년에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지원을 받기도 하며, 2년 만에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여러 공간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겠다는 포부를 가지며 매주 공연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마임극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일본 공연에 이어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 극장에서 한국 관객과 만났으며 이 역시 4회 공연 모두 전석 매진을 기록하였다. 아마추어와 프로 연기자의 중간 단계에서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청소년극단 <고등어>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 청소년극단 <고등어>는 상시 단원을 모집하며, 극단원이 되고 싶은 청소년들은 안산문화재단 문화사업부 031-481-05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이메일 _____

□□□□ - □□□□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9.1~2014.10.10

안산시우체국
제206호

하늘다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고잔동)
안산문화재단 하늘다리 담당자 앞

4 2 5 - 9 0 6

Thanks to Sponsorship

문화나누미 '예술타리'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현재

총 **325,086,940**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후원금 전액은 문화소외계층 공연관람을 위해 사용됩니다.

달빛회원

안산시청 복지정책과, 웨보레 안산남부영업소, 신한은행농구단, 안산대학교,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기업은행 안산점 김동호, (주)정든, (주)우리미래, 안산중앙신협, (주)코레코, 윤영중, BM산부인과, 드림웍스, 삼우도시시설관리(주) 대한민국상이군경회지성용역사업소, 하라컴즈, 포스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음악동아리 '딴따라', 안산도시개발(주) (주)크레디아인터내셔널, 지구촌문화협회 김윤호, 롯데카드 주식회사

나눔회원

박수연, 바리스커피, 헬로우오복성, 김용민, 김윤성, 이명식, 허연숙, 황정임, 하양숙, 김영균, 박수현, 버들공방 이유석, 이상철

보람회원

김원해, 송지현, 백종찬, 조남백, 강재근, 손경오(한국공연예술문화기획), 원스페이스, 이엔씨커뮤니티케이션스 맑음이벤트, 김봉식, 다원뮤지컬, 세방기획, 김종호, 대신전시(김기명), PMC프로덕션,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라이브아트, (주)케이티파워콤, 이양수, 양미경, 주부연극교실 '유혹', 한진택, 유인철, (주)신원엠에스 (주)가람이엠에스, 클린코리아, 덕영엔지니어링, 김일매, 차종영, SR Ent,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 송학천, 보화당, (주)퍼시스케이디, 김명산, 안산시건축사회, 유재학, (주)쇼플레이, 남양숙 아이다운, 주식회사 애드윅컴, 단청닷컴, 김광우, 자연미감, 신바람놀자학교, 한국공예체험문화협회, And Clay, 아티스토리 미술, 영농조합법인 아이빅스캠프, 켈마트리, 천사부메랑, 김충서 사과와 당근 갤러리, 오형선, 정현욱, 권옥숙SRM, 최민석, 거룡전력(주) 홍희성

독자설문

1. <하늘다리> 09+10월호에서 가장 유익했던 기사는?
2. <하늘다리> 11+12월호에서 만나보고 싶은 인물은?
3. 안산문화재단에서 보고싶은 공연은?
4. 그밖에 <하늘다리>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5. <하늘다리>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하늘다리> 문의 031-481-4047 (안산문화재단 하늘다리 담당자)